

碩士學位論文

部首 規範化에 관한 研究

- 『說文解字』 540部首와 『字彙』 214部首를 통하여 -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金 河 鍾

2003年 12月

部首 規範化에 관한 研究

- 『說文解字』 540部首와 『字彙』 214部首를 통하여 -

指導教授 安 在 哲

金 河 鍾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金河鍾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곽 이 부

委 員 이 영 호

委 員 안 재 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3年 12月

目 次

I. 緒 論

1. 研究目的 1
2. 研究範圍와 方法 4

II. 部首 多樣化의 原因

1. 時代的·社會的 原因 6
2. 字典 編纂者의 思想的 原因 9
3. 字形 變遷 原因 13

III. 字典의 部首 分析

1. 部首의 內容
 - 1) 『說文』 540部首 16
 - 2) 『字彙』 214部首 29
 - 3)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 47
2. 部首의 比較
 - 1) 字典 間 部首의 共通點 52
 - 2) 字典 間 部首의 差異點 57

IV. 部首 規範化 方案

1. 部首의 設定 61
2. 部首 間 排列 順序 65

VI. 結 論 71

【參 考 文 獻】 75

【中 文 抄 錄】 77

【附 錄】 79

I. 緒 論

1. 研究目的

현재 中國에서는 漢字整理¹⁾에 대하여 다방면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중 하나로 部首의 整理에 관한 연구 역시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部首整理에 관한 연구의 목적은 현재 中國의 各種字典의 部首가 일치되지 않아 독자들이 字典을 찾을 때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각종 字典의 部首設定 및 部首間 排列順序 특히 同一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에 대한 基準設定 즉 規範化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部首는 어떠한 규칙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일까? 部首設定은 漢字의 形體(字形)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許慎²⁾이 『說文解字(이후 『說文』으로 간칭한다)』敍에서 “蒼頡之初作書，蓋依類象形，故謂之文。其後形聲相益，即謂之字。字者，言孳乳而寢多也(蒼頡이 처음 문자를 만듦에, 依類象形을 文이라 하고, 形聲相益을 字라 하였다. 字는 점점 불어나서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依類象形”과 “形聲相益”은 漢字淵源의 兩大 關鍵이라 할 수 있다. 소위 “依類象形”에서의 形은 實形과 虛形을 모두 포괄하므로 六書의 原理에서 말하자면 象形과 指事를 뜻하며, 이는 漢文字의 字根이다³⁾라 할 수 있다. 文의 數量은 객관적인 제한을 받게 되므로, 자연적으로 많을 수는 없다. “形聲相益”이란 유한적인 字根을 이용하여 無限의 배합을 만들어 낸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字는 文이 불어

1) 姜椿芳, 梅益(1998 : 208~209)에 따르면 漢字整理란 給漢字定量, 定形, 定音, 定序, 使它規範化, 標準化的工作이라 定義하고 있다.

2) 許慎은 中國 文字學의 창시자로 유명하지만 『後漢書』 儒林傳에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을 뿐 자세한 사적은 알기 어렵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許慎 字叔重, 汝南 召陵人也. 性淳篤, 少博學經籍, 馬融常推敬之, 時人爲之語曰: 五經無雙許叔重. 爲郡功曹, 舉孝廉, 再遷除涿長, 卒于家. 初慎以五經傳說臧否不同, 於是撰爲五經異義, 又作 說文解字 十四篇, 皆傳於世.

3) 江舉謙(民國 59 : 151)

난 것으로, 文을 통하여 字를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字를 통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字의 구성은 文에 形 혹은 聲이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字의 근원과 성질이 같고 또한 유형이 같은 字群을 파악한다면 하나로써 그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다. 그래서 部首設定은 이론상 완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용상에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各樣各色의 事와 物에서 공통의 형상 또는 속성을 추상하여 그것을 部首로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문자들을 분류·배열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도입한 사람은 東漢의 許慎이다. 許慎이 『說文』(東漢 和帝 永元 12년(A.D.100))에서 처음으로 창안한 部首는 이후의 모든 字典의 根幹이 되었다.

部首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미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⁴⁾ 이는 대부분 許慎의 『說文』 540部首에 대한 연구(甲骨文의 출토되어 이를 통한 540部首의 本義 탐구 및 540部首의 排列原則 그리고 540部首에 근거한 現代各種字典의 部首淵源 탐구 등)의 결과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하지만 部首의 개념은 段玉裁가 『說文解字注(이후 段『注』라 간칭한다)』에서 언급하였듯이 “같은 자형을 지닌 무리群에서 가장 중심되는 의미”로부터 오늘날 “漢字字典里屬于同一偏旁的部目(漢字로 쓰여진 字典에서 同一偏旁에 속하는 部類의 目錄⁵⁾)”을 지칭하는 것으로, 꼭 중심이 되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일련의 漢字群을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형체가 있으면 될 뿐이라는 것으로 그 의미가 좀 더 포괄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된 이유는 『說文』에서 창안된 部首排列法이 字典 편찬의 보편적 방식으로 채택된 이후 약 19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漢字의 字形 변천과 字典 편찬의 목적 등에 따라 당시의 현실에 맞도록 자기 변혁과 발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許慎이 창안한 部首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部首概念, 部首數量 및 部首排列順序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현대 中國의 各種字典의 部首를 살펴 보면 다음 <표1> 과 같다.

4) 耿二嶺(1981), 施安昌(1981), 黃兆林(1981), 張旭光(1980), 程養之(1982), 王有強(1983), 群一(1983), 周國光·李向農(1983), 蘇新春(1984), 左民安(1987), 河永三(1995), 朴秋鉉(1995) 등이다.

5) 姜椿芳, 梅益(1998 : 30)

字典	年代	編者	部首數
『中華大字典』	1915	中華書局	214
『辭海』	1965	中華書局	278
『四角號碼新詞典』, 『新華字典』(修訂本)	1978		188
『辭海』	1979	上海辭書	250
『新華字典』	1987	商務印書館	189
『辭源』(修訂本)	1988	商務印書館	194
『漢語大字典』	1990	湖北兩個辭書出版社聯合	200
『漢語大詞典』	1986~1994	商務印書館	200
『新編小學生字典』(修訂本)	1990	人民教育出版社	189
『現代漢語詞典』	1996	商務印書館	189

〈표1〉

위 〈표1〉을 통해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各種字典마다 部首 設定基準을 달리하고 있어⁶⁾ 독자들이 字典을 찾을 때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規範化 방안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說文』 540部首와 『字彙』 214部首 그리고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를 비교·분석한 후 現代 字典의 목적에 맞게 部首 規範化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字典의 편리한 검색을 도모하고 漢字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은 물론 이러한 規範化 과정을 통하여 우선 中國의 현행 字典의 部首를 規範化하고 더 나아가 漢字文化圈인 中國, 韓國, 日本에서 편찬되는 字典의 部首 規範化에 조그마한 기여를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몇 중요한 字典에 수록된 部首 設定 및 排列順序에 대한 研究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6) 예를 들면 『新華字典』 商務印書館出版, 1987年重排本에서 “本字典采用的部首跟一般字典用的部首基本相同, 略有改并.”라 하고 있고, 또한 『現代漢語詞典』 修訂本,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商務印書館出版, 1996年7月修訂第三版에서도 “本檢字表采用的部首跟一般字典的部首基本相同—略有改并.”라 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모두 “略有改并”이라 하여 각각의 字典마다 字典 편찬의 목적에 적합하게 部首 設定基準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 研究範圍와 方法

部首는 東漢 許慎에 의하여 創案되었는데, 이후 明代 梅膺祚의 『字彙』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커다란 맥락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2> 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字典	年代	編者	部首數
『倉頡篇』	B.C.247~210	李斯	
『訓纂篇』	1~5	楊雄	
『續訓篇』	60~70	班固	
『說文解字』	100	許慎	540
『字林』	288	呂忱	540
『玉篇』	543	顧野王	542
『字源偏旁小說』	약 760	林罕	541
『篆書偏旁字原』	약 950	夢瑛	539

<표2>

하지만 明代 梅膺祚의 『字彙』가 편찬됨에 따라 部首設定 및 排列順序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후 현대까지 대부분의 字典은 『字彙』 214部首를 根幹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표3> 을 통해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字典	年代	編者	部首數
『字彙』	1615	梅膺祚	214
『正字通』	1675	張自烈	214
『康熙字典』	1716	陳延教	214
『中華大字典』	1915	中華書局	214

<표3>

위 <표2> 와 <표3> 을 통하여 『說文』 과 『字彙』 가 部首에 至大한 影響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에 本 論文은 이처럼 各種字典마다 部首가 다양한 樣相을 보이는 原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說文』 540部首와 『字彙』 214部首 및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設定 및 排列原則에 대한 比較 研究를 통하여 部首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각각의 장점을 취하여 現代 字典의 목적에 맞게 部首 規範化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저본으로 삼고있는 저서는 다음과 같다.

1. 『說文』은 許慎에 의하여 편찬되었으나 眞本이 망일된 후 宋代 서현(徐鉉) 등에 의하여 宋太宗雍熙三年(公元986)에 조판되었는데 이를 大徐本이라 통칭한다. 현재 우리들이 『說文』이라 칭하는 것은 大徐本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63년 1월 中華書局에서 인쇄한 大徐本을 저본으로 삼는다. 이후 540部首라 하면 『說文』을 지칭한다.
2. 段『注』는 2001년 10월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판된 것을 저본으로 삼는다.
3. 『字彙』는 1991년 6월 上海辭書出版社에서 발행하고 常熟市文化印刷所에서 인쇄한 것을 저본으로 삼는다. 이후 214部首라 하면 『字彙』를 지칭한다.

II. 部首 多樣化의 原因

1. 時代的 · 社會的 原因

인간은 그가 처해있는 시대적 ·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되는데, 서론에서 언급된 중요한 字典 편찬자들 즉, 許慎과 梅膺祚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許慎과 梅膺祚가 字典을 편찬할 당시 그들의 사상 및 생활을 지배한 시대적 ·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살펴본다.

1) 『說文』 編纂 時期

西漢時代에 學童은 17세에 시험을 치뤄 9千字를 암송하고 해독해야만 비로소 史(郡 · 縣에서 문서를 관장하는 관리)가 될 수 있었고 또한 8가지 字體를 시험하여 합격해야만 비로소 尙書史(중앙에서 문서를 관장하는 관리)가 될 수 있었다. 국가에서 이렇게 요구하자 사람들은 단순히 『急就篇』 같은 아동에게 글을 깨우치는 교본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 東漢時代에 이르러 9千字를 암송하고 해독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8가지 字體를 시험보는 것도 더 이상 실행되지 않아, 국가의 어문교육이 매우 문란해지자 사람들은 字形을 멋대로 해석하였다. 예를 들면 “말머리와 사람 人字의 결합이 長이요, 사람이 十을 잡은 字形이 斗이며, 蟲字란 가운데 中字를 굽힌 것이다(『說文』 敍 : 馬頭人爲長, 人持十爲斗, 蟲字屈中也)”라고 설명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 시기는 고대에서 더욱 멀어졌기 때문에 古書는 갈수록 더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이러한 狀況下에서 字典의 편찬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었다.

또한 西漢時代 武帝는 유학자 동중서(董仲舒)의 제언에 따라 儒學을 국교화하였다. 동중서(董仲舒)는 春秋公羊學을 배워 景帝 때 박사가 된 학자였지만 그의 정치사상은 신비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즉, 五行說에 바탕을 둔 天人相關說(天人感應說이라고도 함)이었다. 黃帝를 중심으로 하는 天人

感應說은 집권화를 추구하던 武帝에게는 아주 적합한 사상이었으므로 이후 이 사상은 漢代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東漢時代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왕망(王莽) 정권이 등장하였다. 漢 初期 신비주의적 儒學은 이 시기에 讖緯說로 흐르고, 이는 왕망(王莽)의 정권찬탈에 사상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작용도 하였다. 讖緯란 미래에 대한 기록과 예언을 의미하는 圖讖과 경서를 보완한 緯書로 구분되는데, 모두 신비적 예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⁷⁾ 따라서 漢代의 사상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신비주의적 儒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상황하에서 許慎은 『說文』을 편찬하게 되었고 또한 이 책에서 당시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글자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록하기 위하여 540部首를 창안하게 되었다.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그는 당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本義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540개라는 많은 部首를 설정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사상의 영향으로 540部首 排列順序는 陰陽五行說에 입각하여 無限의 변화 사이클을 이루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로 설정된 部首는 이후 明代까지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540部首의 設定 및 排列順序의 큰 맥락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字彙』 編纂 時期

字形 변천과 反切 注音方法의 탄생은 韻書 발생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漢·魏 이후 篆書, 古文은 隸書, 草書 등으로 변하는 등 漢字 字形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字形이 변화되면서 形聲字의 聲部가 점점 字音을 정확하게 표현해 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문자의 정확한 讀音에 대한 일정한 표준이 점차 사라지게 되자 韻文을 쓰는데 매우 곤란하여 사람들이 사회 교제에 적잖은 장애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하에서 漢 明帝 때 佛經이 전래되면서 이를 漢字로 옮기는 과정에서 梵文字母의 영향을 받아 反切⁸⁾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反切의 학문은 西域으

7) 신성곤, 윤희영(1997 : 87~92)

8) 反切의 起源에 대하여 다양한 學說이 있지만, 筆者는 王力(1980 : 91~96),

로부터 中國에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梵文佛經을 해석하기 위하여 反切을 사용하였지만, 漢·魏 間에는 反切을 사용하여 注音하는 방법이 점차 성행하였고, 六朝에 이르러 四聲이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文人들의 주의를 이끌었으며, 게다가 齊·梁 間에는 文學을 창작할 경우에 반드시 聲律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다방면의 요구에 의하여 韻書가 출현하게 되었다.⁹⁾ 따라서 六朝부터 明代까지 音韻學 方面에 커다란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六朝부터 明代까지 文字學은 音韻學 方面의 성취에 비해 상당 부분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명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文字學 方面에 있어서는 『說文』의 영향이 그대로 이어졌고, 音韻學 方面은 『洪武正韻』 및 『篇海』 등의 韻書의 영향이 매우 컸음은 『字彙』 序를 통해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明 初期에는 漢族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儒敎에 입각한 교육을 강화하였으나 中期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이 표출되어 朱子學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어 陽明學이 출현하게 되었다. 즉, 陽明學이 성립된 것은 明 中期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明 中期 특권적인 대지주가 등장하고 상공업의 발달로 富를 축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지주는 영세한 농민을 소작인이나 임노동자로 지배하는 등 계층의 분화가 심해지면서 사회모순이 드러났다. 明初 체제유지를 위하여 사상의 기초가 되었던 朱子學으로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없었고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용할 學說로 왕양명(王陽明)(1472-1529)의 心學이 출현하였다. 인간의 마음이 곧 천하만물의 理法이므로 마음을 함양하는 것으로 족하고 굳이 학문을 통할 필요가 없다는 心即理의 주장은 宋代 주자(朱子)의 理學과 달리 心學을 중시한 것으로 마음의 不正을 바로하여 타고난 본연의 知 곧 良知를 실현한다고 하여 주관적인 수양을 중시하였다. 주관적인 수양의 중시에서 안다는 것은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知行合一說이 나왔다. 그리고 인간은 도덕적으로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 士農工商의 사민 평등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더 나아가 萬物一體論까지 발전하였다.

姜椿芳, 梅益(1998 : 71~73)에 따른다.

9) 姜椿芳, 梅益(1998 : 505)

陽明學은 庶民文化의 발달에도 도움을 주었다. 明代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제국이 안정되었고 게다가 산업이 발달하여 宋代 이래로 성장해온 서민문화가 난숙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강남지방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으로 蘇州 등 산업과 문화의 중심도시가 성장하였고, 도시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도시민 곧 서민문화의 발달을 가져왔다. 서민이 즐기는 通俗小說은 明代 문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행하였는데, 서민뿐만 아니라 지식인들도 이를 즐겨 읽고 또 스스로 이러한 작품을 짓는 등 지식인과 서민이 문화를 공유하는 대중화시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明 末期로 갈수록 내부 모순(집권층의 黨爭, 지주와 영세한 농민간 대립, 내각이 환관을 郡에 파견하여 郡의 지휘권을 침해하고 부정을 자행하였으며 민중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어 농민반란이 확대)과 滿洲族의 위협이 육박하고 있는 위기 상황 등 대내외적인 위기의식과 서양문물과의 접촉에 자극을 받아 經世致用的이고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하였다.¹⁰⁾

따라서 지식인과 서민들의 문화 공유를 위하여 보다 실용적인 字典 편찬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필요하에서 『字彙』가 편찬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字典들은 『字彙』의 영향을 받아 실용성 위주로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字典 編纂者의 思想的 原因

1) 『說文』의 作者

위에서 언급한 漢代의 시대적·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許慎 역시 陰陽五行說에 입각한 신비주의적 儒學의 범주를 탈피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그는 『說文』을 편찬하면서 540部首를 설정하였는데, 540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하여 許慎 스스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후세의 학자들은 許慎의 사상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540, 삼

10) 신성근, 윤혜영(1997 : 218~243)

6×9×10在內, 6爲陰之極, 9爲陽之終, 10又是全數, 暗含着包森羅萬象的意思”(540이란 숫자는 6×9×10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6이란 숫자는陰의 한계이고 9란 숫자는 陽의 끝이며 또한 10이란 숫자는 모든 수(완전한 수)이다. 따라서 이는 삼라만상을 포괄하고 있음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다)¹¹⁾라고 풀이하었는데, 이 설명에 따르면 540이란 숫자에서도 『易』의 陰陽五行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許愼은 낱말로서의 釋義에 만족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묘사와 서술을 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묘사와 서술 가운데 그의 經學家적이고 陰陽五行家적인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물론 本義를 탐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誤謬를 지적하고는 있으나, 許愼이 보여 준 묘사와 서술은 당시 시대적·사회적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字彙』의 作者

梅膺祚가 『字彙』를 편찬할 당시 상황은 실용적인 학문을 필요로 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자 梅膺祚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字彙』를 편찬하였다. 이에 梅膺祚가 말하는 실용성이란 무엇이고 또한 그는 어떠한 사상을 바탕으로 『字彙』를 편찬하였는지에 관하여 『字彙』序를 통하여 살펴본다.

『字彙』序에 따르면

吾從弟誕生之字彙其端其終悉以數多寡, 其法自一劃至十七劃, 列二百十有四部, 統三萬三千一百七十九字. …… 敍曰古今之論文字者, 必原始包犧氏之畫卦矣. 其初特一奇一耦以象陰陽, 故易者象也, 大衍以五乘十, 當萬物之數, 故又曰易者數也. …… 記有之字者孳也又乳也, 言孳乳相生而無窮也. …… 數主于象者也. 昔所稱易爲萬世文字之祖者非邪.

今茲之一直一橫者, 是其遺制也. 古者六歲教數與方名, 十歲入小學學六甲書計之事. 周保氏教國子以六書, 教與學咸以其序而成其材. 然實昉之數. 誕生

11) 王寧, 謝棟元, 劉方(2001 : 1)

少學易爲諸生誦通將受餼，徒而游國子，精治六書，悟其終始于易有數可循也。所纂著若此……(생략).

나의 동생 誕生(梅膺祚의 號)의 『字彙』는 시작과 끝이 모두 數의 多寡로써 하고 있으며, 1劃부터 17劃까지를 그 범으로 하여, 214部首를 나열하여 33,179字를 통제하고 있다. …… 敍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예나 지금이나 문자란 원시시대 包犧氏의 畫卦임에 틀림이 없다. 그것은 처음에는 하나의 홀수와 하나의 짝수로써 陰과 陽을 그렸으므로 『易』이란 그림을 말한다. 그리고 크게 50까지 잡아 늘리니 이는 만물의 數가 되므로 또한 『易』이란 數를 말하는 것이다. …… 字라는 것은 불어나고 늘어나며, 言 역시 계속 생겨나고 불어나 無窮하다라는 기록이 있다. …… 數란 주로 象에 있다. 예전 『易』이라 불리던 것은 온 세상 문자의 시초가 아닌가?

고로 이 책에 실린 한 字 한 字는 그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옛날 6歲에 數와 方名을 가르쳤고, 10歲에 小學에 입학하여 六甲과 書計를 배웠다. 周代 保氏는 國子에게 六書を 가르침에 차례로 모든 것을 가르치니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처음으로 數라는 것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내 동생인 誕生은 어려서부터 『易』을 배워 학생들에게 널리 보급시키니 장차 俸祿을 받게 되었고, 國子監에 들어가 六書を 자세히 연구한 결과, 『易』에는 始終一貫 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 ……(생략).

梅膺祚는 먼저 독자들이 글자를 찾을 때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字彙』를 편찬 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는 數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는 數에 기초하여 『字彙』를 편찬하게 되었고 게다가 部首設定 및 部首間 排列順序 그리고 屬字排列 역시 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數의 기초를 『易』에서 찾고 있다. 즉, 『易』이란 數를 뜻하고 數는 바로 象에 있다. 처음에 하나의 홀수와 하나의 짝수로써 陰과 陽을 그린 象이란 온 세상 문자의 시초이며 이러한 문자는 계속 불어나는 것으로 무궁무진한 것이다. 이는 순환하는 無限의 변화 사이클을 드러내는 것으로

許慎의 『說文』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면 그가 언급하고 있는 數와 十二地支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干支에 대해 알아보자.

干支란 天干과 地支의 생략된 명칭이며 이는 『白虎通』에서 “甲乙者幹也, 子丑者枝也”(甲乙 등은 줄기이고 子丑 등은 가지이다)라고 한 幹枝가 원래의 뜻이다. 天干은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등 10개의 문자로 구성된 十進法 관념의 순환에 기초를 두고 있는 紀數系統이며 地支는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등 12개의 문자로 구성된 十二進法 관념의 순환에 기초를 둔 紀數系統이다. 그리고 干支는 天干과 地支가 서로 배합하여 조성하는 六十進法 관념의 순환에 기초를 둔 紀數制度이다. 원래 甲乙丙丁 등과 子丑寅卯 등의 字義에는 어떠한 數의 관념이나 意義가 없었으나 이 글자들이 가차되어 干支가 된 후부터 數의 개념을 지니게 되었다. 고명개(高名凱)의 『漢語語法論』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데 매우 타당하다.

中國語의純粹序數其實是干支. 干支의發明本來是用以紀日, 後來又用以紀年, 紀月, 紀時. 時·日·月·年都是時間的問題, 而時候的特徵則在於有順序. 干支是用來紀年, 紀月, 紀時的, 並不是用來計算時日的多少. 換言之, 他的用處是在說明時日前後的順序, 所以他根本是個序數的性質.

중국어의 純粹序數는 사실상 干支이다. 간지의 발명은 본래 날짜를 적는데 쓰였으나 나중에 年·月·時를 기록하는 부분까지 쓰여지게 되었다. 時·日·月·年은 모두 시간의 문제이며 時候의 특징은 바로 順序에 있는 것이다. 干支는 年·月·日·時를 적는데 쓰여지긴 하였지만 時日의 양을 계산하는 부분에는 결코 쓰이지 않았으며 그 용도는 時日 前後의 순서를 설명하는데 있었으므로 그 根本은 序數의 성질인 것이다.¹²⁾

따라서 梅膺祚는 『易』에서 數의 기초를 삼았고, 干支는 序數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干支를 順序로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왜

12) 高名凱(民國 74 : 338)

干支 中 天干이 아닌 十二地支를 채택하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하고자 한다.

3. 字形 變遷 原因

1) 『說文』의 표제자

『說文』의 體例는 小篆體를 표제자로 하고 먼저 字義를 설명한 후 字形·字義·字音間 관계를 설명하였다. 許慎이 『說文』을 편찬한 목적은 문자의 本義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는 小篆體가 보다 더 적합하였으므로 그는 小篆體를 표제자로 하였다.

甲骨文과 銅器上에 보이는 商代의 문자는 圖畫의 단계를 벗어난 문자였지만 圖畫의 形式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었다. 周代에 이르러 銅器上의 문자는 筆劃上에서 甲骨文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매우 비슷하였다. 春秋 戰國時期에는 문자를 기록하는 수단과 방법이 이전의 방법과는 달라 竹簡 등에 붓으로 쓸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새기거나 주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문자의 사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되었다. 이 시기 列國의 문자는 각각의 특색이 있어 완전히 불일치하게 되었다. 列國 중 秦國은 西周의 문자를 계승하였고, 筆劃이 점차 복잡하게 변한 것과는 달리 나머지 國家에서는 筆劃이 점차 간소화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秦始皇이 列國을 통일한 후 秦國의 문자와 다른 모든 문자를 없애고 이전의 秦國 문자(大篆)를 약간 改變하여 小篆으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小篆은 原始 문자의 本義를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한 문자이므로 許慎은 小篆을 표제자로 삼아 『說文』을 편찬하게 되었다.

2) 『字彙』의 표제자

隸書¹³⁾는 秦代에 형성되었으나, 그 起源은 戰國時代의 列國에서 사용한

문자라 할 수 있다. 戰國時代 政治, 經濟, 文化가 급속히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문자의 사용이 날로 증가하여 筆劃은 감소되고 字形은 長方形으로 변하게 되었다.

秦始皇에 의하여 통일된 小篆은 六國文字에 비하여 복잡할 뿐만 아니라 쓰기에도 어려웠으며, 隸書는 六國文字에 비하여 簡易化되어 일반 백성들의 需要에 더욱 부합되었다. 또한 小篆은 단지 秦나라 사람들이 예전 문자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의를 지닐 뿐 실제적으로는 隸書의 사용이 매우 우세하였다. 따라서 秦始皇은 小篆으로 문자를 통일하였으나, 사실상 隸書로 문자를 통일한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¹⁴⁾

隸書는 문자의 기능 면에서 볼 때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부터 漢字 본래의 造字法과 字形 구성상의 요소를 알기 어렵게 된 글자가 많아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象形字의 의미가 없어지고 會意字·形聲字의 분석이 어렵게 된 것이다. 隸書와 楷書¹⁵⁾는 단지 筆勢가 약간 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隸書가 얼마간 통용되다가 점차 楷書가 출현하게 되자 書寫에 편리한 표준적인 통용 문자로 인정받아 마침내 그 자리를 굳힌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唐代에는 이미 楷書가 일반적으로 盛行하게 되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

『字彙』의 體例는 當時의 書體인 楷書體를 표제자로 하고 있다. 당시 시대적·사회적 영향으로 실용성에 입각한 字典라면 당시의 書體로 쓰여짐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13) 隸書는 秦隸, 漢隸, 八分으로 구분되는데, 秦隸는 秦始皇 時期에 사용된 簡化字를 말하고, 漢隸란 漢代에 일상적으로 사용한 書體를 말한다. 隸書는 形體 및 筆劃이 끊임없이 발전하여 東漢 中期 매우 세련되었는데, 熹平四年(175) 이를 新隸體라고 하여 國家의 標準書體가 되어 魏 이후 그것을 八分이라 칭한다.

14) 姜椿芳, 梅益(1998 : 197~198, 257~258, 515~516)

15) 漢末 隸書와 비슷한 新書體가 있었는데, 六朝 이래 그것을 眞書, 正書 혹은 楷書라 칭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熹平四年(175) 太學에서 『石經』을 지었는데 이는 八分體를 표준으로 하였으나 永壽二年(156) 陶器上에 사용된 대부분의 문자는 眞書에 가깝다. 따라서 왕차중(王次仲)이 만든 八分楷法의 전설과 채옹(蔡邕)이 쓴 『石經』은 모두 隸書의 전통을 유지하는 각도에서 당시의 正體字에 대한 規範化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眞書는 일상적으로 사용된 簡易化의 조류의 영향으로 조성된 新書體였다.

3) 現代 字典의 표제자

漢字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圖畫 단계에서 문자 단계로 진입하면서 대부분의 漢字는 簡易化 되었다. 즉, 甲骨文과 金文에서 몇 몇 글자들이 簡化되었고, 小篆 시기에 이르러 많은 字體가 簡化¹⁶⁾되었으며, 隸書와 楷書 시기에 簡化된 字體는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게다가 漢魏六朝 시기에는 碑石 등에 그리고 唐代 서적 가운데 상당수의 簡化字가 보인다. 宋代 이후 簡化字의 사용 범위는 더욱 넓어졌고 簡化字의 수량 또한 매우 증가하였다. 近代에 이르러, 太平天國은 문서 뿐만 아니라 옥새도 簡化字를 사용하였을 정도로 簡化字의 사용은 매우 광범위하였다.

1909년 육비규(陸費逵)는 『教育雜誌』 창간호에서 簡化字를 제창하는 논문 「普通教育應當採用俗體字」를 발표하였고, 1922년 전현동(錢玄同)은 國語統一籌備委員會에서 「減省現行漢字的筆劃案」을 발표하여 簡化字 사용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다가 中華人民共和國 건립 후 簡化字의 사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中國文字改革研究委員會가 설립되어 漢字 簡化字 초안을 작성하여 通用簡化字를 전국에 공표하여 簡化字의 합법적 지위를 확정시켰다.

現代 字典들은 대부분 편찬 목적을 실용성에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簡化字를 표제자로 하고 있다. 물론 모든 漢字에 대하여 簡化字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簡化字가 있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楷書體를 표제자로 하고 있다.

16) 姜椿芳, 梅益(1998 : 205~209)에 따르면 漢字簡化란 두 가지 뜻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漢字를 簡化하는 작업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簡化된 漢字를 의미한다. 따라서 簡化字란 繁體字의 대칭으로 쓰인다.

Ⅲ. 字典의 部首 分析

1. 部首의 內容

1) 『說文』 540部首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部首設定은 許慎의 중요한 창작이었다. 본디 漢字는 形體를 빌어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이 때문에 字義를 분석하고 귀속시켜 분류하는 것은 文字學者가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다. 許慎이 창안한 540部首 중에는 비록 併合할 수 있거나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다만 부분적일 뿐이다. 이렇게 하여 설정된 540部首의 排列에 대하여 許慎은 매우 고심하였다. 그는 형체가 서로 비슷하거나 또는 뜻이 서로 비슷한 部首를 하나의 부류로 분류하고 배열하여 540部首를 약간의 대류로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되도록 하였다. 그가 그렇게 한 목적은 독자가 意部의 작용을 더욱 잘 알고, 따라서 더욱 확실히 字義를 이해하도록 돕자는 데 있었다.¹⁷⁾

(1) 『說文』 540部首 設定原則

字典이란 무엇 실용성을 兼備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용성이란 글자를 찾을 때 편리를 제공하는데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글자를 어떻게 배열하여 독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說文』 이전의 字書인 『蒼頡』 殘卷과 『急就編』에 대하여 말하자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글자들을 취하여 字義에 따라 종류별로 배열하고 四言 혹은 七言으로 押韻하여 이루어진 것이다.¹⁸⁾ 하지만 許慎은 『說文』에 수록된 10,516字(『說文』에는 9,353字

17) 王力 著, 李鍾振·李鴻鎮 譯(1980 : 52~69)

18) 黃德寬·陳秉新(1994 : 23~25)

그 뜻과 形體가 모두 ‘玉’ 에서부터 나왔으므로, ‘玉’ 이 字根이 된다. 이 외에도 正文 115字 및 重文 17字의 정황이 대략 이와 비슷하다. 따라서 그는 10,516字를 각각 字根에 근거하여 종류별로 나누고 취합하여, 540개의 部首를 설정하여 많은 글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나) 直接歸依原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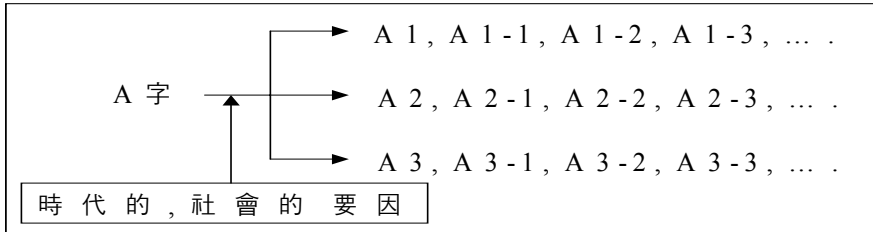
어떠한 A 라는 글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字形上 A 라는 글자를 따르는 다른 B, C, … 라는 글자가 있어 A 라는 글자가 그것을 따르는 모든 글자의 字根이 되어, 그것을 따르는 모든 글자가 A 라는 글자에 직접적으로 歸屬 된다면 歸屬되는 글자의 數量에 상관 없이, 모두 부류를 나누어 部首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珏’(珏 이라는 글자는 字形과 字義上 ‘玉’ 部首에 포함 시킬 수 있다) 部首에 들어있는 屬字는 ‘班’, ‘珣’ 두 글자가 있는데, 이 두 글자는 字形과 字義上 모두 ‘珏’에서 緣由된 것이다. 따라서 ‘班’, ‘珣’ 이 두 글자를 직접적으로 歸依되게 하는 글자인 ‘珏’ 이란 글자가 있어, 특별히 ‘珏’ 部首를 세워 그것들을 속하게 하였다. ‘蓐’(이 글자는 字形과 字義上 ‘艸’ 部首에 넣을 수 있다) 部首에 ‘蓐’ 이라는 하자의 글자가 있는데, ‘蓐’ 글자는 字形 및 字義上 ‘蓐’ 에서 緣由된 것으로, 직접적으로 歸依되게 하는 글자가 있어 비록 한 글자 밖에는 없지만 이를 部首로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𠂔’ 部首, ‘品’ 部首, ‘𠂔’ 部首 등은 ‘口’ 部首에, ‘言’ 部首는 ‘言’ 部首에, ‘𠂔’ 部首는 ‘爻’ 部首에, ‘𠂔’ 部首는 ‘目’ 部首에 속할 수 있지만, 그 部首에 직접적으로 귀속하는 글자가 있어 部首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예는 매우 많이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²¹⁾

(다) 分別統屬原則

본래는 동일한 글자였지만 시대적·사회적 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字義上으로는 동일하지만 字形上 변화되어 글자의 구조와 형체가 서로 달라지게 되어, 그로부터 불어난 글자들 가운데 어떠한 글자들은 此形

21) 江舉謙(民國59 : 154~156)

을 또 다른 글자들은 彼形을 취하게 되면, 그 淵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分別하여 部首를 세웠다. 이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說文』 540部首를 바탕으로 예를 들면, 大(389)와 夨(402)에 대하여 『說文』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大(389) : 𡗗, 天大, 地大, 人亦大, 故大象人形. 古文大也.

夨(402) : 夨, 籀文大. 改古文, 亦象人形. 라 하여 ‘大’에서 변화되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段『注』에서 ‘大’를 “明祇一字, 而體稍異. 後來小篆偏旁或從古或從籀, 故不得不殊爲二部. 亦猶從人從兒必分系二部也(단지 하나의 글자임이 분명하지만 形體가 약간 다르다. 후에 小篆偏旁이 혹은 古文을 따르고 혹은 籀文을 따르므로, 특별히 兩部를 세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오직 人을 따르고 兒를 따르는 글자는 兩部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夨’에 대하여 “本是一字而凡字偏旁或從古或從籀不一. 許爲字典乃不得不析爲二部, 猶人兒本一字, 必析爲二部也. 顧野王玉篇乃用隸法, 合二部爲一部, 遂使古籀之分不可考矣(본래는 동일한 글자이지만 偏旁이 혹은 古文을 따르고, 혹은 籀文을 따르고 있어 하나가 아니다. 許慎은 字典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部首로 분석하였고, 오직 人과 兒는 본래 동일한 글자이지만, 반드시 두 개의 部首로 분석해야 한다. 顧野王의 『玉篇』은 隸書를 이용하여 이 두 개의 部首를 하나로 併合하여 1개의 部首로 설정하니, 다시는 古文과 籀文이 서로 나뉘어 고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許慎의 部首設定原則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原則을 바탕으로 분류한 部首에는 上述한 ‘大’와 ‘夨’ 이외에도 巾과 艸, 冫와 冫, 冫과 冫, 自와 白 그리고 鼻, 人과 兒, 頁와 頁 그리

고 首와 같은 部首들이 있다.

(라) 獨立設定原則

許慎의 『說文』 편찬 목적은 字源을 분명히 밝혀 本義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편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獨立部首를 설정하였는데, 獨立部首라 함은 部首는 설정되었으나, 屬字²²⁾가 없는 部首를 말한다. 물론 이렇게 설정된 獨立部首에 대하여 현대적 견해로 살펴본다면 立部의 의의를 상실하였음은 물론이고 또한 위에서 언급한 “簡略함으로 全體를 統制한다는 原則”에도 위배하는 듯 보이지만, 許慎의 의도를 고려한다면 獨立部首의 설정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 原則을 파악하기 위하여 540部首 중 屬字가 없는 部首는 어떠한 部首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三(4), 凵(23), 凵(171), 久(204), 才(209), 乚(216), 車(217), 克(251), 泉(252), 耑(265), 丂(327), 卍(360), 彖(367), 易(368), 彖(376), 能(380), 彖(413), 燕(426), 率(470), 它(475), 卍(491), 四(503), 五(507), 六(508), 七(509), 甲(513), 丙(515), 丁(516), 庚(520), 壬(523), 癸(524), 寅(530), 卯(531), 未(535), 戊(539), 亥(540) 등이다. 이들 36개의 部首는 어떠한 屬字도 없이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22) 『說文』 540部首의 屬字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個의 屬字를 가진 部首는 155個 部首 즉, 气(8), 蓐(13), 告(21), 哭(25), 步(29), 正(31), 등이고, 2個의 屬字를 가진 部首는 105個 部首 즉, 王(5), 珏(7), 丨(10), 小(15), 半(18), 犛(20), 丩(28), 此(30), 是(32), 牙(39), 疋(41), 品(42), 冊(44), 舌(46), 干(47) 등이고, 3個의 屬字를 가진 部首는 52部首 즉, 上(2), 士(9), 龠(14), 乚(35), 誩(51) 등이고, 마지막으로 4個 以上の 屬字를 가진 部首는 192個 部首에 달한다. 게다가 100字 이상 포함하고 있는 部首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玉(6): 125字, 艸(12): 444字, 口(22): 179字, 辵(33): 117字, 言(56): 244字, 目(99): 129字, 鳥(119): 115字, 肉(135): 139字, 竹(143): 143字, 木(206): 420字, 邑(229): 183字, 疒(274): 101字, 人(287): 244字, 衣(300): 115字, 馬(370): 114字, 火(382): 111字, 心(408): 262字, 水(410): 468字, 魚(424): 102字, 手(441): 264字, 女(443): 238字, 糸(467): 247字, 虫(471): 152字, 土(480): 130字, 金(490): 196字 등이다.

위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許愼은 字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비록 屬字가 없을지라도 혹은 한 글자만을 屬字로 하는 部首라 할지라도 다른 部首에 억지로 끼워넣지 않고 그 屬하는 바가 없으면 그대로 두어 部首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部首를 설정함에 있어 同體를 重疊 사용하여 이루어진 합체자가 部首로 설정된 경우 즉, ‘玉’(6) 部首를 重疊하여 사용한 ‘珏’(7) 部首, ‘中’(11) 部首를 重疊 사용한 ‘艸’(12) 部首, ‘艸’(14) 部首 등인 경우 반드시 그 部首 속에는 屬字가 있어야만 部首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²³⁾에는 部首로 설정하지 않았다.

(2) 『說文』 540部首 排列原則

許愼이 創案한 540部首는 어떠한 原則에 근거하여 배열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許愼 자신이 『說文』 後敍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說文』 後敍에 따르면



其建首也，立一爲崑。方以類聚，物以群分。同條牽屬，共理相貫。雜而不越，據形系聯。引而申之，以究萬原。畢終于亥，知化窮冥。

部首를 세움에, 一을 세워 그 처음으로 한다. 종류별로 모으고 무리별로 분류하였다. 同條에는 소속된 글자들을 이끄니 모두가 가지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난잡하지만 그리 심하지 않고, 字形에 근거하여 서로 연결시켰다. 그것을 끌어당겨 펼치니, 만물의 근원을 다 아우렀다. 亥에서 끝마치고 있으니, 그 아득함까지 다 살필 수 있으리라.²⁴⁾

23) 示(3) 部首 속에 祿字가 있어 同體를 重疊 사용하여 이루어진 모든 合體字를 部首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24) 許愼의 사상적 배경을 논할 때 이 부분(始一終亥)에 근거하여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易』에 바탕을 둔 經學的 陰陽五行說이 그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許愼은 部首를 배열할 때에도 경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許愼은 시대적 한계로 인하여 陰陽五行家이긴 하지만 部首 배열은 그의 사상과는 별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部首의 배열이란 글자를 찾는 것과 관련이 있어 이는 독자들에게 글자를 찾을 때 편리함을 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共理相貫”과 “據形系聯”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異見을 제시하고 있다. 즉, 540部首의 排列順序는 字義로 서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共理相貫이야말로 排列原則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 共理相貫은 목적이요, 據形系聯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이에 대하여 段『注』에 따르면

凡部之先後，以形之相近爲次。同條共理，謂五百四十部相聯綴也。據形系聯，系字縣也，聯字連也。謂五百四十部次第大略以形相連次，使人記憶易檢尋。如八篇起人部，則全篇三十六部皆由人而及之是也。雖或有以義相次者，但十之一而已。部首以形爲次，以六書始於象形也。

部首의 先後 배열은 字形의 유사함으로 그 次例를 이루고 있다. 同條共理라 함은 540部首가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일컫는 말이다. 據形系聯이라 함은 系字는 縣이고, 聯字는 連이다. 540部首의 次例는 形으로써 次例를 이루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찾는 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8篇은 人部에서 시작하여, 全篇 36部가 人으로부터 나왔다. 비록 義로 그 次例를 이룬 것도 있으나, 이는 소수에 불과할 따름이다. 部首는 形으로써 그 次例를 삼고, 六書는 象形에서 시작된다.

라고 注 하면서 同條共理는 목적이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據形系聯이라 하여 540部首의 배열에 대한 大原則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의 部目 부분에서 540部首의 排列原則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하였다. 그는 『說文』 540部首의 배열은 字形의 유사함으로 배열되고 있으며 字形이 유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字義의 유사함으로 배열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字形과 字義로 배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蒙”字를 사용하였다.²⁵⁾

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25) 하지만 540部首의 排列順序를 설명함에 있어 모든 부분에 대하여 “蒙”字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즉, “蒙”字를 쓰지 않고 설명하는 部首도 많이 있다. 게다가 여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部首 다음에 “無所蒙”이라 注한 부분

그리고 高明의 『論說文解字之編次』에 따르면 『說文』 540部首의 排列原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²⁶⁾

- 가) 部首 間 字形으로 연결 (字形連部相蒙爲次例)
- 나) 몇 개의 部首를 건너 字形으로 연결 (字形隔部相蒙爲次例)
- 다) 部首 間 字義로 연결 (字形上无所蒙, 則系之以誼例)
- 라) 字形 혹은 字義로 서로 연관이 없어 따로 部首를 놓아둔 경우 (形誼均无可系則特起例)

하지만 『說文』 540部首의 排列順序를 총체적으로 살펴본다면 高明이 제시한 原則 중 나) 原則과 라) 原則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部首 間 연결이 불가능한 부분에서 나) 原則을 남용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部首는 연결되고 또한 연결이 불가능한 부분에서 라) 原則이라고 설명하면 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는 『說文』 540部首의 排列原則에 대한 연구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許愼은 高明이 제시한 나) 原則인 隔部에 의한 차례에 대하여 어떻게 排列하고 있는가? 왜 이러한 原則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ㄱ) 合體字가 部首로 設定된 경우

540部首가 字形 및 字義에 따라 연속적으로 전개되다가 어느 특별한 合體字인 部首에 이르러서는 合體를 이룬 성분별로 차례로 전개하다 보면 자연히 分岐가 된 部首로부터 앞의 성분계열 部首의 숫자 만큼 간격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敎(93)은 支, 爻, 子, 卜 등 4개의 文으로 구성된 合體字인데 ‘敎’(93) 部首 다음 ‘卜’(94) 部首를 채택하여 ‘用’(95) 部首까지 연결시키고, 다음 ‘爻’(96) 部首를 채택하여 ‘𠄎’(97) 部首까지 연결한

(5個 部首 : 牙(40), 鬲(71), 𠄎(121), 𠄎(123), 放(128))과 “不蒙上”이라 注한 부분(49個 部首 : 竹(143), 甘(150), 丿(174) 등) 그리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58個 部首 : 一(1), 𠄎(77), 高(187) 등) 등 112개 部首이다.

26) 金槿(1981 : 27~29) 再 인용

다음 다시 본래의 ‘攴’(92) 部首 계열의 部首群으로 돌아가 ‘攴’(98) 部首를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文으로 구성된 合體字 部首가 출현할 경우에는 合體字 部首를 각각 분리하여 연결시킨 후 다시 分岐 이전의 部首와 字形 혹은 字義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를 좀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說文』 540部首 가운데 初文(象形字와 指事字)인 部首와 合體字(形聲字와 會意字)인 部首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許愼이 『說文』을 편찬할 당시에 참고한 자료는 小篆, 古文(漢代에 발굴한 각종 金文을 비롯하여 고대의 經典에 쓰인 書體), 籀文(이는 籀書라고 하며 곧 大篆의 字體를 말한다)이라 할 수 있다. 이보다 오래된 문자인 甲骨文이 아직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참고한 자료의 限界로 말미암아 許愼이 그 당시 참고한 문자를 “倉頡初文”으로 간주하기는 매우 어렵다. 漢字의 생성 과정에서 우선 獨體의 初文을 文이라하여 여기에는 象形字와 指事字가 속하게 된다. 이에 前代의 학자인 朱駿聲(朱駿聲), 王筠(王筠), 馬敘倫(馬敘倫) 등이 六書에 근거하여 『說文』 540部首를 분류한 결과를 <표4> 를 통해 살펴보자.

	象形	指事	會意		形聲		其他	總計
			部首數	百分率	部首數	百分率		
朱駿聲	264	74	165	30.5	37	6.8	0	540
王筠	200	90	208	38.5	36	6.6	6	540
馬敘倫	257	75	68	12.5	138	25.5	2	540

<표4>

위 表는 朱駿聲(朱駿聲)은 『六書爻列』를, 王筠(王筠)은 『文字蒙求』를, 馬敘倫(馬敘倫)은 『說文解字六書表』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王筠(王筠)은 “玄, 芴, 丘, 瓠, 奈, 嵬” 등을, 그리고 馬敘倫(馬敘倫)은 “立, 辛” 二部를 “其他”에 포함시켰다.²⁷⁾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說文』 540部首는 모든 部首가 初文(象形字와 指事字)은 아니더라는 점이다. 따라서 『說文』 540部首 중 약 35%~40%가 合體字 部首로 構成되었기 때문에 隔部에 의한

27) 張標(1988 : 148~149)

字次가 생긴 것이다.

(ㄴ) 동일 字形을 重疊 사용한 合體字가 部首로 設定된 경우

예를 들면 동일 字形을 重疊 사용하여 이루어진 部首는 口(22), 𠂔(24), 品(42), 𠂔(45) 部首가 있다. 바로 前 部首의 字形을 따르는 部首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설명한 후 重疊 사용한 部首를 다시 배열하고 있다. 즉, 口(22), 凵(23), 𠂔(24), 哭(25)……, 足(40), 疋(41), 品(42), 龠(43), 冊(44), 𠂔(45)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屮(11), 艸(12), 蓐(13), 屮(14)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

하지만 동일 字形을 重疊 사용하여 이루어진 部首를 字形上 따르는 部首가 있을 때에만 이 경우에 해당하고 이의 字形을 따르는 部首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뒤에 연결시킨 후 다시 前 部首와 字形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면 目(99), 眚(100), 盾(101), 自(102)의 順序로 배열되었고, 工(147), 𠂔(148), 巫(149)의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

(ㄷ) 같은 字形이지만 形體가 약간 다른 경우

字形이 약간씩 변한 部首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三(4), 王(5), 玉(6), 玨(7), 气(8) 인 경우 ‘气’ 部首는 前 部首인 ‘玨’ 部首를 따르는 경우가 아니라 ‘三’(4) 部首를 따르고 있다. 이 部分에 대하여 장화(蔣和)는 『說文解字集註』에서 “三乾道也。古文天字亦作 𠂔, 象積气覆下也。平垂象天, 斜曲象气”(三은 乾道이다. 古文에서는 天을 𠂔 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기운이 쌓여서 아래를 덮은 모양이다. 三이 평행한 것은 하늘을 나타낸 것이고 비스듬히 굽은 것은 기운을 그린 것이다)라 한 것으로 보아 ‘气’의 字形은 ‘玨’ 字形에서 차례가 된 것이 아니라 ‘三’의 字形에서 온 것으로 단지 형태만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字形上 약간 다른 경우에는 같은 字形을 따르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먼저 배열 한 후 字形上 약간 다른 部首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배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연유로 隔部에 의한 차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위에

제시한 모든 原則을 이용하여도 연결되지 않는 部首들이 있다. 이들 部首는 段『注』의 部目 部分에서 “不蒙上” 혹은 “無所蒙”이라 注된 部分²⁸⁾이고, 고명(高明)이 字形 혹은 字義로 서로 아무런 關係가 없어 따로 部首를 놓아둔 경우(形誼均无可系則特起例)가 그러하다. 이러한 部首는 前後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이 『說文』 540部首의 排列 順序를 논할 때 “字形”을 위주로 하고 “字義”가 補充한다고 하고 있으나 漢字는 形·音·義 三者가 모두 긴밀하게 關係를 맺고 있음에 착안하여 本論文은 몇 몇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한 部分에 대하여 字音으로 연결²⁹⁾을 시도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告(21), 口(22), 凵(23), 𠂔(24), 哭(25) 部首는 모두 聲母가 같거나 혹은 비슷하고, 正(31), 是(32), 走(33), 彳(34) 등 4개의 部首, 囟(406), 思(407), 心(408), 惛(409) 등 4개의 部首, 面(326), 丐(327) 등 2개의 部首 등은 字形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聲母 혹은 韻母도 비슷하다. 이에 段『注』에서 “無所蒙” 혹은 “不蒙上”이라 注 한 몇 몇 部分에 대하여 살펴본다.

* 哭(25)과 走(26) : 段玉裁의 古音 17部를 살펴보면 ‘哭’은 屋韻, 第3部에 속하고 ‘走’는 厚韻, 第4部에 속해 있다. 연결은 對轉³⁰⁾된 것으로 主母音이 서로 같아 연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³¹⁾

28) 段『注』와 서현(徐鉉)의 『說文』(許慎이 편찬한 『說文』은 亡逸되었으나, 宋 太宗 雍熙三年(986) 서현(徐鉉) 등이 校定한 『說文』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들이 볼 수 있는 『說文』은 許慎이 편찬한 것이 아니라 서현(徐鉉) 등이 편찬한 것으로 지금 『說文』이라 하면 이 책을 指稱한다)과 다른 部分은 다음과 같다.

즉, 段『注』中 部首의 순서는 甘(150), 旨(151), 曰(152), 乃(153), 𠂔(154), 可(155), 兮(156), 号(157), 亏(158), 喜(159) 순서로 배열되고 있으나, 서현(徐鉉)의 『說文』은 甘(150), 曰(151), 乃(152), 𠂔(153), 可(154), 兮(155), 号(156), 亏(157), 旨(158), 喜(159) 로 서로 순서가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段『注』의 喜(159) : 不蒙上 이라 注한 部分은 『說文』 540部首의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 部分은 冫形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

29) 金小春(1985 : 62~65)에 따르면 音으로 연결을 시도한 학자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특히 육종달(陸宗達)의 『說文解字通論』, 清代 등정정(鄧廷禎)의 『說文解字雙聲疊韻譜』, 황간(黃侃) 등의 학자가 그들이다.

30) 李敦柱(1997 : 544~546)에 對轉과 旁轉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 部分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31) 李敦柱(1997 : 643~644) 에 屋韻과 厚韻이 서로 對轉되고 있는 關係를 진

- * 蕓(122)와 ㄷ(123) : 段玉裁의 古音 17部에 따르면 ‘ㄷ’는 蕭韻, 第2部에 그리고 ‘蕓’는 侯韻, 第4部에 속해 있어 서로 연결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王力の 古韻 29母, 古聲 32紐에 따라 분석해 보면 서로 疊韻 관계임을 알 수 있다.³²⁾ 따라서 이 부분은 字音が 서로 近似하여 연결되고 있다.
- * 矛(127)와 放(128) : 段玉裁의 古韻 17部에 따르면 ‘矛’는 第5部の 代表字인 魚韻, ‘放’은 第10部の 代表字인 陽韻에 속한다. 이 두 글자는 陰陽對轉 관계에 있으므로, 그 연결은 主音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³³⁾
- * 角(142)과 竹(143) : 段玉裁의 古音 17部에 따르면 ‘角’은 覺韻, 第3部 入聲에 그리고 ‘竹’은 屋韻, 第3部 入聲에 속해 있어 音이 서로 비슷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字音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
- * 𣎵(244)와 𣎵(245) : 『說文』에 따르면 𣎵: 𣎵也. 艸木之華未發, 函然. 象形이라 하여 초목의 꽃이 아직 피지 않고 머금은 모양을 그린 글자이고, 𣎵木垂華實. 從木, 𣎵亦聲 라 하여 나무에 꽃과 열매가 열려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이다. 따라서 ‘𣎵’는 ‘𣎵’ 聲을 따르고 있다고 許愼 자신이 밝히고 있어 이 부분은 字音으로 연결되고 있다.
- * 𣎵(286)와 人(287) : 王力の 古韻 29母, 古聲 32紐에 따르면 ‘𣎵’는 脂韻端紐, ‘人’은 眞韻日紐에 속하여, 韻은 陰陽對轉, 聲은 旁紐雙聲의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字音が 유사하여 연결되고 있다.³⁴⁾
- * 辟(342)과 勺(343) : 王力の 古韻 29母, 古聲 32紐에 따르면 ‘辟’과 ‘勺’는 모두 幫紐에 속하고 雙聲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字音が 비슷하여 연결되고 있다.
- * 苟(345)와 鬼(346) : 王力の 古韻 29母, 古聲 32紐에 따르면 ‘苟’와 ‘鬼’는 見紐에 속하고 雙聲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字音が 비슷하여 연결되고 있다.

신웅(陳新雄)(1935~)이 주장한 바를 그린 모음 4각도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 32) 李敦柱(1997 : 651~657)에 수록된 上古韻母의 推定音 對比表 參考.
- 33) 李敦柱(1997 : 643~644) 에 魚韻과 陽韻이 서로 對轉되고 있는 관계를 陳新雄(1935~)가 주장한 바를 그린 모음 4각도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 34) 李敦柱(1997 : 651~657) 上古韻母의 推定音 對比表 參考하면 王力の 上古音에 대하여 알 수 있다. 以後 王力の 上古音이라 하면 이 部分에 나와있는 내용임을 밝혀둔다.

- * 石(357)과 長(358) : 王力の 古韻 29母, 古聲 32紐에 따르면 ‘石’은 鋒韻禪紐에 속하고, ‘長’은 陽韻定紐에 속하므로, 韻은 陰陽 對轉 (陰聲은 入聲을 포괄한다)이 되고, 聲은 雙聲 (照三系 歸端系) 관계에 있어, 이 두 글자는 音이 비슷하여 연결되고 있다.
- * 而(361)와 豕(362) : 段玉裁의 古音 17部에 따르면 ‘而’는 之韻, ‘豕’는 支韻이고 동시에 上平聲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王力の 古韻 29母, 古聲 32紐에 따르면 ‘而’는 之韻, ‘豕’는 支韻이라 서로 疊韻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 㒼(409)와 水(410) : 段玉裁의 古音 17部에 따르면 ‘㒼’은 紙韻, 上聲이고 ‘水’는 旨韻, 上聲이므로 聲調가 동일하고, 王力の 古韻 29母, 古聲 32紐에 따르면 疊韻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 民(445)과 丩(446) : ‘民’은 眞韻明紐에 속하고, ‘丩’은 『唐韻』에 따르면 房密切 一音이므로, ‘民’과 旁紐雙聲, 陰陽對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두 글자는 音이 서로 비슷하여 字音으로 연결되고 있다.
- * 𠂔(448)과 氏(449) : 『說文』에 따르면 氏 : 巴、蜀山名岸脅之旁箬欲落墮者曰氏. 氏崩, 聞數百里. 象形, 𠂔聲 라 하여 巴, 蜀이라고도 하는 산의 기슭 부근의 것이 곧 떨어지려 하는 것을 氏라고 한다. 氏가 무너지면 그 소리는 수 백 리 밖에서도 들린다. 象形이며 𠂔聲이다라 하여 前 部首와 字音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瓦(462)와 弓(463) : ‘瓦’는 疑紐, ‘弓’은 見紐이므로 서로 旁紐 雙聲 관계이므로 이는 字義와 字音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
- * 荔(489), 金(490) 그리고 𠂔(491) : ‘荔’은 葉韻匣紐, ‘金’은 侵韻見紐, ‘𠂔’은 元韻見紐에 속하므로, 이 세 글자는 서로 聲韻이 모두 가깝다. 그 중 ‘金’과 ‘𠂔’은 서로 雙聲 관계에 있고, 이 두 글자와 ‘荔’은 서로 旁紐雙聲 관계에 있으며, ‘荔’과 ‘金’은 또한 對轉을 이루고 있다. 이 세 글자의 배열은 위와 마찬가지로 聲韻의 遠近 관계에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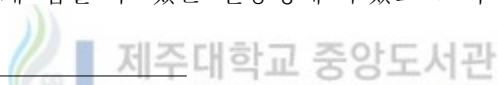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본다면 『說文』 540部首의 排列原則은 據形系聯의 原則을 위주로 하고 字形으로 연결이 불가능한 부분은 字義 및 字音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즉, 字形으로는 434개의 部首가, 字義로는 79개

의 部首가, 字音으로는 16개의 部首가 연결되고 있고, 나머지 10개의 部首는 연결이 불가능하다. 이들 10개의 部首는 다음과 같다. 巫(149)와 甘(150), 井(177)과 凵(178), 冫(210)과 之(211), 冫(243)과 冫(244), 髟(334)와 后(335), 竝(405)과 囟(406), 丩(431)과 不(432), 丰(442)와 女(443), 率(470)과 心(471), 車(498)와 車(499)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字彙』 214部首

許慎이 창안한 540部首는 漢代에서부터 明代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혁이 진행³⁵⁾되다가 明代 『字彙』에 이르러 214部首로 통일되게 된다.

梅膺祚는 당시 시대적·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字彙』의 편찬 목적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용성에 두었고 그가 말하는 실용성이란



35) 部首改革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梁 고야왕(顧野王)의 『玉篇』에서는 『說文』 540部首 中 削除된 部首는 哭, 延, 畫, 敖, 眉, 白, 毚, 飲, 后, 介, 弦 등 11개 部首이고, 增加된 部首는 父, 云, 巢, 尢, 處, 兆, 磬, 索, 書, 床, 單, 弋, 丈 등 13개 部首이므로, 『說文』 540部首보다 2개 部首가 많은 542개 部首이다. 또한 『說文』 540部首는 據形系聯의 大原則에 따라 배열되었으나, 『玉篇』은 字義가 서로 비슷한 순서로 배열하여 部首의 배열순서가 매우 다르다. 宋 사마광(司馬光)의 『類編』에서는 단지 第八卷의 重(296) 部首 이하에서 部首의 排列順序가 조금 변하여, 臥(297) 部首, 身(298) 部首, 鳥(299) 部首 등 3개 部首를 人(287) 部首와 관련있는 字와 함께 배열하였고, 衣(300) 部首, 裘(301) 部首 등 2개 部首 또한 한 곳에 모았는데 이 부분이 『說文』 540部首의 排列順序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리고 艸(12) 部首, 食(180) 部首, 木(206) 部首, 水(410) 部首 등 4개 部首는 각각 上下로 나누었기 때문에, 『說文』 540部首보다 4개 部首가 더 많게 되었으나 여전히 540部首로서 增加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宋 정초(鄭樵)의 『通志』 中 「六書略」에서는 문자의 形體를 분석하였다. 그는 獨體를 文이라 하고, 合體를 字라 하여 330개 母가 形의 主가 되고, 870개 子가 聲의 主가 되어, 합하면 1,200개의 文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字는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진다라고 하여 330개의 母를 部首로 설정하였다. 遼 행균(行均)의 『龍龕手鑑』에서는 총 四卷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각 卷은 平聲, 上聲, 去聲, 入聲으로 나뉘었고, 全書는 平聲 97개 部首, 上聲 60개 部首, 去聲 26개 部首, 入聲 59개 部首로 총 242개 部首를 수록하고 있고, 金部에서 시작하여 雜部에서 끝을 맺고 있다.

바로 數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字彙』序를 통하여 數에 대한 그의 思想을 언급하였고 모든 문자를 數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일한 字形을 지닌 글자들을 분류한 후 분류된 모든 글자에 공통적인 부분 즉 동일한 字形(偏旁)을 部首로 설정하였다. 이에 『字彙』214部首 設定原則에 대하여 살펴본다.

(1) 『字彙』214部首 設定原則

『字彙』214部首는 『說文』540部首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하여 削除, 併合, 增加 등의 방법을 통하여 214部首를 설정하였는데, 이에 어떠한 原則을 바탕으로 部首를 설정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簡略함으로 全體를 統制한다는 原則

梅膺祚는 楷書體로 된 문자의 구조와 형체를 귀납하여 字群을 취합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字形(偏旁)을 따르는 글자들을 분류한 후, 字根이 되는 字形(偏旁)을 첫 머리에 세워 部首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亡, 亢, 交, 亦, 亥, 亨, 京 등의 글자는 모두 字形上 ‘亠’에서 나왔으므로, ‘亠’를 첫 머리에 세우고 모든 屬字들을 ‘亠’라는 字形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33,179字의 정황이 대략 이와 비슷하다. 따라서 梅膺祚는 33,179字를 각각 楷書體로 된 偏旁에 따라 분류하고 취합하여 214部首를 설정하여 『字彙』에 수록된 모든 글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나) 同一 字形에 의한 併合의 原則

梅膺祚는 『說文』540部首에 대하여 삭제(540개 部首 가운데 53개 部首 : 이에 대해서는 部首 規範化 方案에서 자세히 설명), 병합(540개 部首 가운데 281개 部首를 97개 部首에 병합), 증가(『字彙』에서 새로 첨가한 8개 部首 : 亠, 冫, 彳, 无, 父, 冫, 内, 艮)를 통하여 214部首를 설정하였다.

梅膺祚가 『字彙』를 편찬할 당시에는 書體上 楷書體가 유행하던 시기였

으므로 『說文』의 書體인 小篆體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즉, 小篆體는 漢字의 本義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字體이지만 글자를 찾기 위해서는 매우 불편한 字體이기도 하다. 小篆體의 수많은 字形들은 書體가 변하면서 대부분 동일한 字形으로 병합되게 되었다. 예를 들면, 無, 馬, 鳥, 燕, 魚, 然의 글자를 살펴보면 글자의 형체 가운데 ‘ㄴ’形은 본래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楷書體에서는 모두 ‘ㄴ’形으로 병합되었다. 따라서 이 원칙은 書體의 변화에 의한 필연적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실용적인 字典 편찬을 위한 梅膺祚의 의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說文』 540部首 가운데 281개 部首를 어떠한 원칙에 따라 97개 部首에 併합시키고 있을까? 이에 우선 281개 部首가 97개 部首에 어떻게 병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一部 : 上(2), 三(4), 兀(145), 𠄎(153), 丘(293), 𠄎(327), 丕(432), 且(494), 七(509), 丙(514), 丁(515), 丑(529)

丨部 : 擘(60), 𠄎(74), 丰(140)

丶部 : 丹(175), 井(177), 丸(355)

ノ部 : ㄴ(77), 乃(152), 久(204), 之(211), 乇(216), 𠄎(217), 𠄎(299), 𠄎(419), 𠄎(447), 𠄎(499)

乙部 : 九(510) , 丨部 : 矛(127), 了(526) , 二部 : 亏(157), 亞(506), 五(507)

一部 : 京(190), 喜(191), 喜(194), 亦(390), 交(393), 亢(399), 亡(457), 亥(540)

人部 : 亼(181), 倉(183), 來(196), 𠄎(218), 𠄎(294), 𠄎(421)

儿部 : 克(251), 兄(312), 𠄎(313), 兔(375)

入部 : 𠄎(278) , 八部 : 共(64), 兮(155), 六(508)

冂部 : 冊(44), 𠄎(122), 𠄎(133), 𠄎(276), 𠄎(277), 𠄎(360)

冂部 : 冥(235) , 丨部 : 冂(171), 出(213), 凶(260) , 刀部 : 刃(138)

力部 : 𠄎(489) , 勹部 : 包(344), 勿(359), 勹(492)

匕部 : 匕(289), 北(292) , 十部 : 半(18), 𠄎(55), 𠄎(121), 𠄎(430), 午(534)

卜部 : 𠄎(246) , 丨部 : 𠄎(337), 印(339), 危(356), 卵(478), 卯(531)

厶部 : 去(172), 厶(502), 厶(511) , 又部 : 𠄎(129)

口部 : 告(21), 哭(25), 品(42), 只(49), 𠄎(50), 句(51), 古(53), 史(78), 可(154),

号(156), 喜(159), 嗇(195), 員(227), 呂(271), 后(335), 司(336), 囍(512)
 口部：囙(240), 囟(385), 囡(406), 四(503), 土部：垚(481), 堇(482)
 士部：壺(160), 亼(295), 壺(395), 壹(396), 壬(523), 夕部：多(242)
 大部：尗(391), 禾(392), 奢(398), 牵(400), 𠂇(401), 夫(403)
 宀部：宮(270), 寗(273), 它(475), 宁(504), 寅(530), 小部：尗(264)
 尸部：尺(306), 尾(307), 履(308), 山部：嵬(349), 屾(352)
 㒼部：巢(222), 𡩺(413), 㒼(414), 川(415), 工部：左(146), 巫(149)
 己部：巴(519), 巳(533), 巾部：市(212), 市(282), 帛(283)
 干部：幸(397), 干(491), 彡部：彡(124), 广部：廌(371), 庚(520)
 弓部：弟(202), 弦(465), 彡部：彡(252), 彡(363), 彡(364)
 彡部：彡(332), 彡部：從(290), 心部：態(381), 思(407), 惇(409)
 戈部：戍(452), 我(453), 戊(517), 戊(539), 手部：才(209)
 支部：教(93), 放(128), 方部：𠂇(234), 无部：无(323)
 日部：是(32), 晨(68), 旨(158), 旦(232), 晶(236), 易(368)
 日部：會(182), 曲(460), 月部：有(238)
 木部：桀(205), 東(207), 林(208), 木(214), 棗(223), 東(224), 棗(225), 東(248),
 未(535)
 止部：步(29), 此(30), 正(31), 歹部：歹(131), 死(132)
 殳部：殺(87), 殺(258), 比部：比(374), 毛部：毳(295)
 氏部：民(445), 氏(450), 水部：洑(411), 灑(412), 泉(416), 灑(417), 永(418)
 火部：爨(69), 烏(120), 炎(383), 焱(386), 炙(387), 燕(426), 牛部：犛(20)
 玉部：王(5), 珏(7), 琴(455), 玄部：率(470), 瓜部：瓠(268)
 瓦部：甞(91)
 田部：異(65), 畫(82), 畀(193), 畀(347), 畀(461), 男(487), 甲(513), 申(536)
 灬部：癸(524), 白部：皃(106), 皂(178), 兒(314), 皃(325)
 目部：𠂇(98), 眉(101), 盾(102), 瞿(116), 瞿(329)
 禾部：稽(221), 秝(254), 禿(317), 立部：辛(59), 竝(405)
 竹部：筋(136), 箕(144), 糸部：系(466), 素(468), 絲(469), 羊部：羴(115)
 羽部：習(107), 而部：耑(265), 肉部：能(380)
 臣部：𠂇(84), 𠂇(297), 𠂇(440), 白部：昇(66), 𠂇(67), 舛部：舛(200)

艸部 : 蓐(13), 𦵏(14), 萑(111), 𦵏(112), 苜(113), 華(219), 苟(345)
 虎部 : 虜(166), 虎(168), 虓(169), 虫部 : 蟲(473), 衣部 : 裘(301)
 西部 : 西(434), 豆部 : 豈(162), 豐(164), 豐(165)
 豕部 : 豚(365), 豨(367), 象(369), 辛部 : 辟(342), 酉部 : 酋(538)
 里部 : 重(296), 隹部 : 雥(117), 隹(118), 雨部 : 雲(423), 首部 : 須(330)
 鹵部 : 鹽(436)

위 내용에 근거하여 梅膺祚의 『說文』 540部首에 대한 併합의 原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同體를 重疊 사용하여 이루어진 合體字 部首 예를 들면, 𠂔, 𠂔, 𠂔, 品, 𠂔, 多, 𠂔 등의 部首는 개별적인 字形을 部首로 설정하여 併합하였다.
- 나. 『說文』 540部首 가운데 屬字가 없는 공허한 部首는 대부분 『字彙』 214 部首 中 다른 部首에 병합되었다. 하지만 ‘ㄷ(23)’ 部首는 屬字가 없는 部首이지만, 『字彙』 214部首 중 그대로 채용되었고, ‘𠂔(376)’ 部首는 병합되지 않고 삭제되었다.
- 다. 合體字 部首인 경우에는 字形 및 字義를 고려하여 개별 部首에 병합되었다.

(다) 동일 劃數에 의한 併합의 原則

『字彙』 214部首의 構成을 살펴보면 劃數³⁶⁾ 즉, 1劃~17劃에 의하여 部首를 병합하고 있다. 이는 『字彙』 214部首 設定原則 가운데 가장 중요한 原則이라 할 수 있다. 물론 『字彙』 편찬 이전에도 數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편찬된 字典은 존재하였다. 『字彙』 凡例³⁷⁾에 따르면 梅膺祚는 『篇海』의

36) 『字彙』 凡例에서 筆劃의 多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字劃에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字變而爲楷, 已失古體. 而鍾王等以善楷名家者又各逞筆資. 任意增減沿習既久. 字劃所繇參差. 故數劃須視前後一二位之間” (字形이 변하여 楷書體가 되어 古體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鍾王 등 楷書體에 뛰어난 名家들은 각자의 재능을 뽐내어 임의대로 劃數를 增減한 것을 답습한 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字劃에 차이가 있게 되었다. 그런 고로 劃數는 반드시 前後間 關係를 살펴야 한다)

部首가 字音으로 서로 차례를 이루고 있어 글자를 찾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는 數의 개념을 파악하여 모든 것을 數로 통제하게 되었다. 梅膺祚가 언급한 『篇海』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篇海』의 완전한 명칭은 『四聲篇海』로서, 『玉篇』·『類篇』·『龍龕手鑑』을 참고하여 엮은 것이다. 모두 579개의 部首로 나누었는데, 후에 한 효언(韓孝彦)의 아들 한도소(韓道昭)가 444개의 部首로 병합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部首에 포함된 屬字는 筆劃의 多少에 의하여 배열하였다. 이 책은 『龍龕手鑑』과 함께 音序查字法의 선구자들이라 할 수 있다. 音序排列法은 본래 진보적인 배열법이다. 韻書는 실제로는 字典의 역할도 하였는데, 그 查字法은 『說文』이나 『玉篇』보다 더욱 편리하였다. 『篇海』에 이르면서 音序排列法은 상당히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語音이 통일되지 않았고 일반 사람들은 또 音韻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실용에는 불편하였다.

오늘날 시각으로 볼 때, 이 책은 文字學 方面에서 살펴볼 때 큰 가치는 없지만 당시에는 영향이 매우 컸다. 유감(劉鑑)의 『切韻指南』 속에 「五音篇首歌訣」이 있고, 『康熙字典』 속에 「檢篇海部首捷法」과 「檢篇卷數法」이 있어 도리어 사람들에게 『篇海』의 部首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는 『篇海』가 한 때 얼마나 성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³⁷⁾

『字彙』 凡例에서 알 수 있듯이 梅膺祚는 『篇海』의 音序排列法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筆劃排列法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는 『篇海』를 비판하였지만 이 字典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상당 부분에서 이 책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篇海』는 筆劃의 多寡에 따라 屬字를 배열하였으나, 梅膺祚는 劃數로 部首를 병합하고 또한 劃數의 多寡에 따라 部首를 배열하는 등 『篇海』에서 얻은 數의 실용성에 근

37) 『字彙』 凡例에 따르면 1. 字. 宗正韻已得其概. 而增以說文(수록된 글자. 『正韻』으로부터 그 대략을 얻었으며, 게다가 『說文』을 증가시켰다). 2. 立部. 篇海以字音爲序. 每苦檢閱之煩. 今以字劃之多寡, 順序列之(部首設定. 『篇海』는 字音으로써 그 차례를 이루고 있어 매번 글자를 찾을 때마다 고통이 뒤따른다. 지금은 字劃의 多寡로써 차례로 그것을 나열하였다)

38) 王力 著, 李鍾振·李鴻鎮 譯(1980 : 163~166)

거하여 동일 劃數에 의하여 部首를 병합하고 있다. 이렇게 한 목적은 바로 실용성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ㄷ) 十二地支에 의한 併합의 原則

梅膺祚는 214部首를 1劃 部首~17劃 部首으로 분류한 후 다시 十二地支에 併합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子集 : 1劃 部首(6個 部首)와 2劃 部首(23個 部首) 즉, 29個 部首

丑集 : 3劃 部首는 總 31個 部首인데, 이를 前後로 나누어 前 部首인 口, 冂, 土, 土, 夕, 夕, 夕, 大, 女 등 9個 部首

寅集 : 3劃 部首 中 前 部首를 제외한 後 22個 部首

卯集 : 4劃 部首는 總 34個의 部首가 있는데, 이를 上, 中, 下로 구분하여 4劃 上인 11個 部首

辰集 : 4劃 部首 中 中인 13個 部首

巳集 : 4劃 部首 中 下인 10個 部首

午集 : 5劃 部首인 總 23個 部首

未集 : 6劃 部首는 總 29個의 部首가 있는데, 이를 前後로 나누어 前 部首인 22個 部首

申集 : 6劃 部首 中 前 部首를 제외한 後 7個 部首

酉集 : 7劃 部首인 總 20個 部首

戌集 : 8劃 部首(9個 部首)와 9劃 部首(11個 部首) 즉, 20個 部首

亥集 : 10劃 部首(8個 部首), 11劃 部首(6個 部首), 12劃 部首(4個 部首), 13劃 部首(4個 部首), 14劃 部首(2個 部首), 15劃 部首(1個 部首), 16劃 部首(2個 部首), 17劃 部首(1個 部首) 즉, 28個 部首

그가 이렇게 한 목적은 독자들이 보다 쉽게 字典을 찾을 수 있도록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干支 中 天干이 아닌 十二地支로 분류·통합하고 있을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볼 수 있다. 즉, 『字彙』에 수록된 글자는 모두 33,000餘 字이다. 이를 12(十二地支)

로 나눈다면 약 2,750餘 字가 된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十二地支에 수록된 각각의 屬字 數³⁹⁾를 살펴보면 子集 : 2,158字, 丑集 : 2,200字, 寅集 : 2,168字, 卯集 : 2,549字, 辰集 : 2,314字, 巳集 : 2,639字, 午集 : 3,418字, 未集 : 3,080字, 申集 : 2,808字, 酉集 : 3,615字, 戌集 : 3,056字, 亥集 : 2,988字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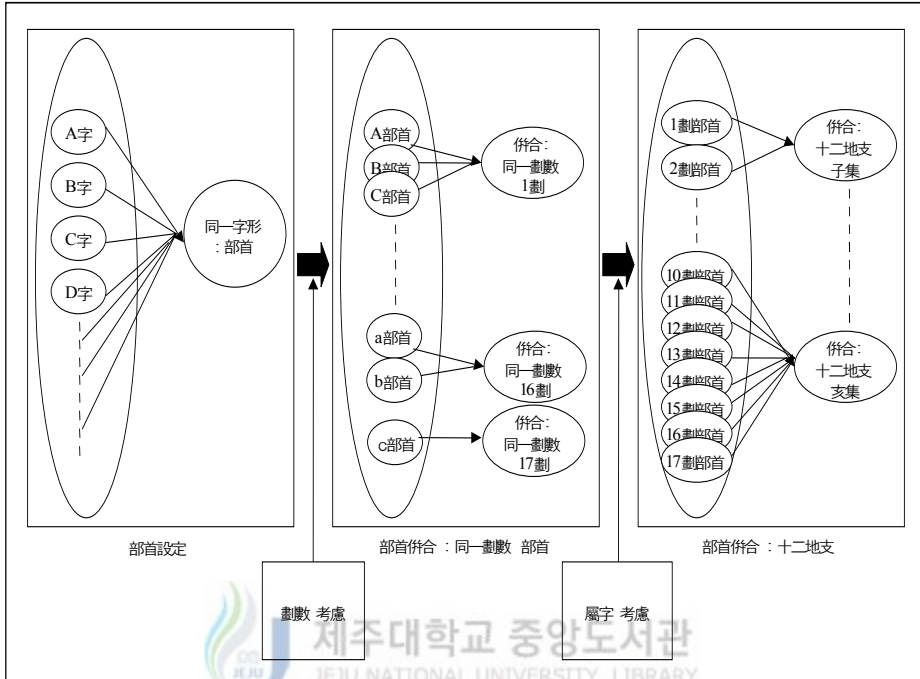
만일 天干으로 한다면 각각의 集에 수록된 屬字의 數가 3,000餘 字가 되는데, 이를 근거로 각 集을 나눈다면 甲集에는 1劃 部首~3劃 部首 中 몇 部首, 乙集에는 甲集에 있는 나머지 3劃 部首~4劃 部首 中 몇 部首, 丙集에는 乙集에 있는 나머지 4劃 部首~5劃 部首 中 몇 部首 등 그 체계가 치밀치 못하므로 梅膺祚는 干支 中 天干으로 나누어 併合하지 않고, 각 集에 수록된 部首의 屬字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十二地支로 나누어 併合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十二地支에 의한 분류·併合의 原則을 살펴보면 각각의 地支에는 동일 劃數의 部首를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만일 동일 劃數의 部首에 속한 屬字의 數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다음 동일 劃數의 部首를 통합하고 있다. 예를 들면, 子集에는 1劃 部首(6個 部首)와 2劃 部首(23個 部首) 즉, 29個 部首를 수록하고 있고, 亥集에는 10劃 部首(8個 部首), 11劃 部首(6個 部首), 12劃 部首(4個 部首), 13劃 部首(4個 部首), 14劃 部首(2個 部首), 15劃 部首(1個 部首), 16劃 部首(2個 部首), 17劃 部首(1個 部首) 즉, 28個 部首를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 劃數의 部首에 속한 屬字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고 있는데, 분리함에 있어서도 屬字를 기준으로 前·後 혹은 上·中·下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4劃 部首를 卯集(上), 辰集(中), 巳集(下)로 나누고 있고, 6劃 部首를 未集(前), 申集(後)로 각각 분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數와 干支에 대한 梅膺祚의 사상과 十二地支에 의한 체계적 분류는 이후 『康熙字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康熙字典』의 체계는 『字彙』의 체계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字彙』 214部首 設定原則을 도식화

39) 屬字에 약간의 오차(약 100餘 字)가 있음을 밝혀둔다. 왜냐하면 原本 자체가 매우 희미하여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글자는 구분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음을 시인한다.

하면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字彙』는 동일한 字形을 취하는 부류별로 분류한 후 각 부류별 동일 字形(偏傍)을 그 부류의 部首로 삼아 214개의 部首를 설정하였다. 또한 214개의 部首는 劃數를 기준으로 1劃 部首~17劃 部首까지, 그리고 각 部首의 屬字를 기준으로 十二地支로 분류·병합하였다. 梅膺祚의 이와 같은 체계적인 部首 設定原則은 이후의 많은 字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 『字彙』 214部首 排列原則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字彙』 214部首는 1차적으로 干支의 紀數思想 영향으로 말미암아 十二地支의 順序로, 동시에 筆劃의 多寡에 따라 1劃 部首부터 17劃 部首까지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동일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이다. 이에 동일 劃數의 部首間 排

列順序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선 3劃 部首를 살펴보면 口, 凵, 土, 士, 夂, 夂, 夕, 大, 女, 子, 宀, 寸, 小, 尢, 尸, 屮, 山, 巛, 工, 己, 巾, 干, 彡, 广, 廴, 井, 弋, 弓, 卩, 彡, 彡 등 31개의 部首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字形(口와 凵, 土와 士, 夂와 夂와 夕, 屮와 山, 彡과 彡)으로 순서를 이루고 있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字義(여기에는 事와 物의 종류별을 의미한다. 弋과 弓, 牛와 犬)로 그 순서를 이루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동일한 聲母(工, 己, 巾, 干 등 見母⁴⁰⁾)로 배열되어 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부류별(字形, 字義, 聲母 등)로 분류할 수 있고 또한 분류된 內에서는 분류의 기준(字形, 字義, 聲母 등)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동일 劃數의 部首 사이에는 어떠한 排列原則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214部首는 어떠한 原則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1劃 部首의 排列順序가 어떠한지 그리고 2劃 部首~17劃 部首에 대하여 字形, 字義, 聲母 및 清·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1劃 部首의 排列順序

『字彙』 214部首 가운데 1劃 部首의 배열은 一, |, 丶, 丿, 乙, 丨의 순서로 되어 있다. 梅膺祚는 214部首의 排列順序에 대하여 1劃 部首~17劃 部首의 순서(十二地支의 紀數思想의 影響)로 배열하고 있다라고 『字彙』 序에서 간략하게 제시할 뿐 동일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字形의 측면과 字音의 측면을 나누어 살펴보자. 字形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함은 『說文』 540部首와의 相異點을 비교하기 위해서이고 字音의 측면은 梅膺祚가 『字彙』를 편찬 할 당시 사회적 상황(韻書의 影響)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40) 『廣韻』의 41個 聲母에 따르면 모두 見母, 牙音, 全清에 속한다.

㉠ 字形的 側面

一, 丨, 丶, 丿, 乙, 丨의 배열은 먼저 ‘一’을 첫 번째 순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說文』에 따르면 “惟初太極, 道立於一, 造分天地, 化成萬物(처음 太極을 생각해보면 道는 ‘一’에서부터 나왔고, 쪼개져 天地가 나누어지고 변화하여 만물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一’은 道와 萬物の 根本으로 파악하여 그 순서를 첫 번째로 하였고, 『字彙』에서는 “伏羲畫卦先劃一奇以象陽數之始也, 凡字皆生於此(伏羲氏가 卦를 그리면서 ‘一’을 처음으로 하니 이렇게 함으로써 陽數가 시작 되었으므로, 무릇 모든 글자는 ‘一’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글자는 ‘一’에서 시작되었고, ‘一’에서 생겨났다고 파악하여 그 순서를 첫 번째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字典에서는 ‘一’部首 및 ‘一’글자를 첫 번째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一’을 제외한 나머지 1劃 部首는 字形上 더 이상 연결이 불가능하다.

㉡ 字音의 側面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一劃 部首에 대한 字音を 알아보자.

一 : 陰, 於悉切, 臻攝, 開口呼, 三等, 入聲, 質韻, 影母(影母 : 喉音, 全清)
 丨 : 上, 古本切, 臻攝, 合口呼, 一等, 上聲, 混韻, 見母(見母 : 牙音, 全清)
 丶 : 上, 知庾切, 遇攝, 合口呼, 三等, 上聲, 慶韻, 知母(知母 : 舌音, 全清)
 丿 : 上, 普蔑切, 山攝, 開口呼, 四等, 入聲, 宵韻, 滂母(滂母 : 唇音, 全清)
 乙 : 陽, 於筆切, 臻攝, 開口呼, 三等, 入聲, 質韻, 影母(影母 : 喉音, 全清)
 丨 : 陽, 衢物切, 臻攝, 合口呼, 三等, 入聲, 物韻, 羣母(羣母 : 牙音, 全濁)

이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가. 만일 韻母를 고려하여 배열하였다면 1劃 部首의 排列順序는 一, 乙, 丨, 丨, 丶, 丿(考慮順序는 다음과 같다. 1. 攝 2. 聲調(陰平, 陽平, 上聲, 去

聲順) 3. 開口呼와 습口呼)로 해야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梅膺祚는 韻母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은 듯 하다.

나. 위 部首에 대한 聲母를 고려하여 七音과 淸·濁⁴¹⁾을 살펴보면 七音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고⁴²⁾, 또한 七音의 순서에 따른 全淸이 끝나면 다시 七音의 순서에 따른 次淸으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1劃 部首의 배열은 字形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字音 中 聲母를 주요 근거로 하고 있고 또한 이에 근거하여 동일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를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聲母에 따른 考察은 이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하지만 위에서 3劃 部首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모든 부분이 聲母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字形, 字義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14部首 중 어떠한 부분이 字形 및 字義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聲母 및 七音과 淸·濁을 基準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나) 同一하거나 비슷한 字形으로 連結

『字彙』 214部首 가운데 동일 劃數의 部首 중 동일하거나 비슷한 字形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二, 一 : 人(亻), 儿, 入, 八, 冂, 冃, 冫(冫을 옆으로 한 모양), 几, 凵(凵 혹은 几를 뒤집은 모양) : 刀(刂), 力, 勹 : 匚, 匚 : 十, 卜 : 厶, 又 : 口, 口 : 土, 土 : 夕, 夕 : 中, 山 : 彡, 彡 : 支, 支(女), 文 : 日, 日 : 毛, 气 : 火(灬), 爪(爪) : 父, 爻 : 爻, 片(片和 반대되는 모양), 牙(牙와 비슷한 모

41) 李敦柱(1997 : 532~537) 에 따르면 漢字音의 聲母를 發音 부위(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하였던 과거 音韻學의 명칭에는 五音, 七音 등이 있고, 또한 漢語에서 聲母가 발음될 때 생기는 성대의 진동과 氣息(aspiration)의 유무에 따른 성음 자질을 淸濁이라 한다고 하였다. 필자는 여기에서 七音이라는名稱을 따르고, 七音의 순서는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순서로 또한 淸濁은 全淸, 次淸, 全濁, 不淸不濁의 순서로 삼고자 한다.

42) 七音 中 어떠한 음이 없으면 다음 음으로 연결되고 있다. 즉, 齒音이 없어 牙音, 舌音, 脣音, 喉音으로 이어지고 다시 牙音으로 넘어가고 있다.

양) : 瓜, 瓦 : 用, 田 : 疒, 彡 : 皿, 目(𠂔) : 穴, 立 : 言, 谷, 豆(이 세 部首는 口의 字形으로 連結) : 豕, 彡 : 赤, 走, 足 : 革, 韋 : 首, 香 등 67개의 部首間 27개 부분이다. 이처럼 部首를 배열하는 목적은 字形이 비슷한 部首를 바로 뒤에 연결시킴으로써 독자들이 글자를 찾을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동일하거나 비슷한 字形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說文』 540部首와 같이 너무 많다면 글자를 찾는 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字彙』 214部首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2개 部首~3개 部首에 지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原則을 설정하지 않아도 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前後 部首間 七音과 淸·濁을 고려하여 배열하고 있다. 예를 들면 匚(상자, 모진그릇 방), 匚(감추다, 덮다 혜) 이 두 部首는 서로 순서를 바꾸어도 무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匕, 匚, 匚, 十의 순서로 배열하고 있는 이유는 匕(幫母 : 脣音, 全淸), 匚(非母 : 脣音, 全淸), 匚(心母 : 齒音, 全淸), 十(禪母 : 齒音, 全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는 1劃 部首의 排列原則에 따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聲母 및 七音과 淸·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 字義로 連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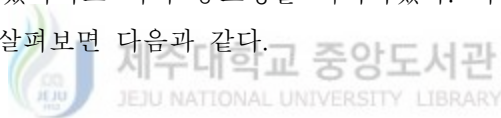
字義로 연결이라 함은 두 가지 즉, 하나는 동일한 劃數의 部首 內에 字義가 같거나 비슷한 部首가 있으면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는 그룹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事나 物의 종류별로 배열되어 있는 그룹을 말한다. 이 중 後者가 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說文』 540部首의 排列原則을 연구할 때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필자 역시 이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고자 한다. 字義로 연결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女, 子(서로 반대되는 의미) : 寸, 小(적다, 작다라는 의미) : 弋, 弓(무기라는 種類別) : 斗, 斤(용량의 단위) : 日, 月(서로 반대되는 字義. 한 部首를 건너서 連結) : 歹, 殳(죽어서 뼈가 남는다라는 서로 연상되는 의미) : 水, 火(灬)(서로 반대되는 의미) : 牛, 犬(가축이라는 種類別) : 矛, 矢(무기라는

種類別) : 竹, 米(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種類別) : 豕, 豸, 貝(動物이라는 種類別) : 足, 身(身體 關聯) : 魚, 鳥(種類別) : 麥, 麻(種類別) : 龍, 龜(種類別) 등 31개 部首間 15개 부분이다. 이 역시 『說文』 540部首의 排列原則 中 字義의 排列原則을 따르고 있다. 즉, 字義가 같거나 비슷하면 서로 연결 시키고, 또한 서로 반대되는 字義가 있으면 바로 뒤에 연결시켜 字典을 찾을 때 편리를 제공한다는 原則이다. 이 역시 字形으로 연결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앞 뒤의 연결은 前後 部首의 聲母 및 七音과 淸·濁을 고려하고 있다.

(라) 聲母, 七音, 淸·濁으로 連結

이 부분은 『字彙』 214部首의 排列原則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劃 部首의 排列順序를 통해 이미 그 대강을 살펴보고, 또한 字形 및 字義間 연결에 있어서도 이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聲母로 連結

ㄱ. 같은 聲母로 바로 連結되는 부분

勺, 匕(幫母) : 工, 己, 巾, 干(見母) : 牙, 牛(疑母) : 白, 皮(並母) : 皿, 目, 矛(明母) : 禾, 穴(匣母) : 虍, 虫, 血(曉母) : 見, 角(見母) : 風, 飛(非母) : 骨, 高(見母) : 鹵, 鹿(來母) : 麥, 麻(明母) 등 28개 部首間 12개 부분이 같은 聲母로 연결되고 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字形 혹은 字義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처럼 같은 聲母로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다. 예를 들면 4劃 部首 중 이하 4개의 部首는 冫, 片, 牙, 牛, 犬의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 이 중 冫, 片, 牙는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字形으로, 牛, 犬은 가축이라는 種類別로 묶여 있어, ‘牙’ 部首와 ‘牛’ 部首는 서로 연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같은 聲母(疑母)를 이용하여 서로 연결 시키고 있다.

나. 한 部 건너 같은 聲母로 連結되는 부분

二, 人, 入(日母) : 𠂔, 弋(以母) : 卅, 弓(見母) : 爪, 甘(見母) : 老, 耒(來母) : 而, 耳, 肉(日母) : 角, 谷(見母) : 革, 韭(見母) 등 18개 部首間 8개 부분이 서로 한 部 건너 같은 聲母로 연결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字形 혹은 字義로 서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같은 聲母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 七音 및 淸·濁으로 連結

위에서 제시한 같은 聲母로 연결된 부분은 여기에서 생략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聲母가 같으면 七音과 淸·濁이 같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는 다음에 소개된 『廣韻』의 41個 聲母表⁴³⁾를 그 근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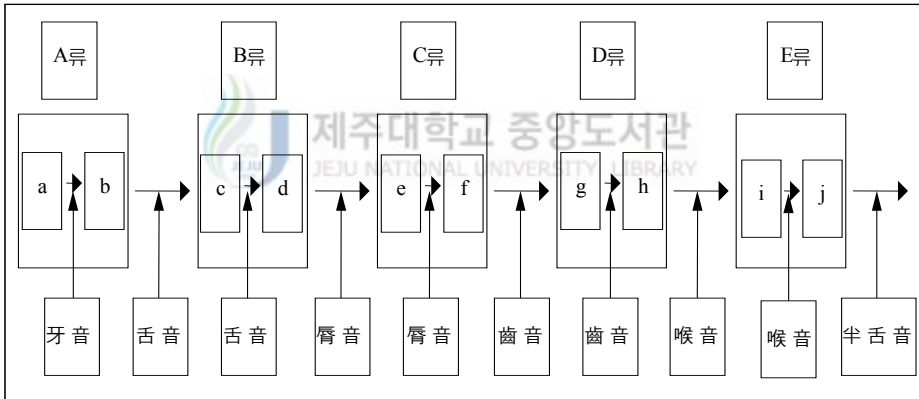
『廣韻』의 41個 聲母表

音 名	全 淸	次 淸	全 濁	不淸不濁
牙音(舌根音)	見	溪	羣	疑
舌音 舌頭音	端	透	定	泥
舌上音	知	徹	澄	娘
脣音 脣重音	幫	滂	並	明
脣輕音	非	敷	奉	微
齒音 齒頭音	精	淸	從	
	心		邪	
正齒二等 (齒上音)	莊	初	牀	
正齒三等 (正齒音)	疏			
	照	穿	神	
	審		禪	
喉音	影	曉	匣	喻 爲
半舌音				來
半齒音				日

43) 李敦柱(1997 : 600)

ㄱ. 같은 七音으로 連結되는 部分

ㄱ, ㄴ(脣音) : 匕, ㄷ(脣音) : 匕, ㅌ(齒音) : 大, 女(舌音) : 寸, 小(齒音) : 山, ㄹ(齒音) : 弓, ㅋ(牙音) : 手, ㅍ(齒音) : 支, 文(脣音) : 方, 无(脣音) : 卍, 比, 毛(脣音) : 氏, 水(齒音) : 牛, 犬(牙音) : 爪, 瓦, 甘(牙音) : ㄷ, 白, 皮, 皿, 目, 矛(脣音) : 矢, 石, 示(齒音) : 缶, 网(脣音) : 羊, 羽(喉音) : 耒, 而(半舌音) : 臣, 自, 至(齒音) : 舌, 舛, 舟(齒音) : 色, 艸(齒音) : 行, 衣(齒音) : 言, 谷(牙音) : 赤, 走, 足, 身(齒音) : 辛, 辰, 辵(齒音) : 邑, 酉(喉音) : 門, 阜(脣音) : 音, 頁(喉音) : 鬥, 鬯(舌音) : 鬼, 魚(牙音) : 齊, 齒(齒音) 등은 같은 七音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다. 이 部分 역시 字形 혹은 字義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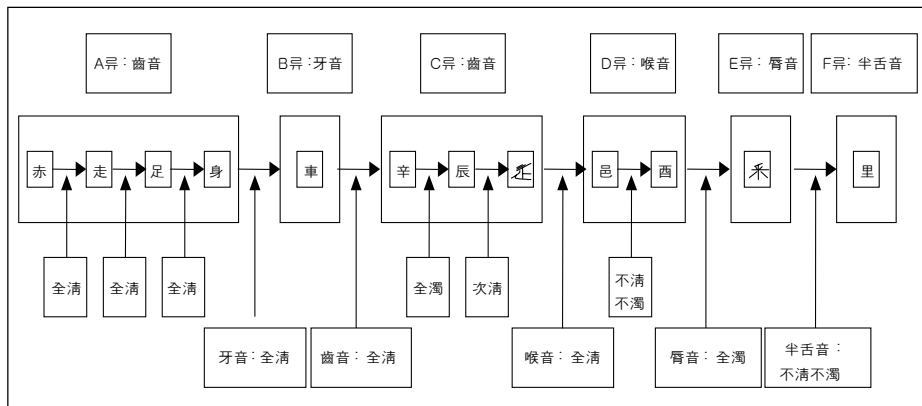
A, B, C, D, E류는 서로 같은 七音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각 類 간에는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 또한 半齒音 다음에는 다시 牙音이 연결되어 七音의 순서는 서로 循環關係에 있다. 또한 만일 B류, C류 혹은 D류가 없다면 牙音 다음에 喉音이 연결된다. 즉, 중간에 七音 중 어떠한 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순서로 배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가운데 어떠한 음이 생략될 수 있고, 만일 생략된다면 다음 음으로 연결된다.

a와 b(c와 d, e와 f, g와 h, i와 j)는 각각 字形(서로 같거나 비슷한 혹은 반대되는 字形), 字義(種類別로 구성된 한 무리群), 字音(같은 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나타낸다. 이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類 안에서는 같은 음으로 연결되고 있다.

ㄴ. 淸·濁으로 連結되는 部分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물론 문제되는 부분은 위의 그림에서 a群 혹은 b群(c, d, e, f, g, h, I, j群도 이와 같음) 内の 순서이다. 7劃 部首를 예로 들어 본다.

赤, 走, 足, 身, 車, 辛, 辰, 辵, 邑, 酉, 禾, 里 등의 순서는 비슷한 字形群(赤, 走, 足)과 字義群(種類別: 足, 身), 그리고 동일한 音群(赤, 走, 足, 身은 齒音, 辛, 辰, 辵은 齒音, 邑, 酉는 喉音)으로 연결되고 있다. 우선 A類: 赤, 走, 足, 身(동일한 音群), B類: 車, C類: 辛, 辰, 辵(동일한 音群), D類: 邑, 酉(동일한 音群), E類: 禾, F類: 里라 가정한다면, A類(齒音), B類(牙音), C類(齒音), D類(喉音), E類(脣音), F類(半舌音)로 되어 있어 전혀 原則이 없는 듯 하지만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가운데 어떠한 음이 생략될 수 있고, 만일 생략된다면 다음 음으로 연결된다라는 原則을 상기한다면 위의 七音의 순서대로 배열되고 있다. 이 부분을 도식화 하면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따라서 『字彙』 214部首 중 동일 劃數의 部首間 排列原則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 『字彙』 214部首 중 동일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는 1劃 部首의 排列順序에 따라 배열되고 있다.
2. 동일한 類(여기에는 위의 설명처럼 字形, 字義, 동일 聲母로 연결되는 部類를 말한다) 內的 첫 部首와 마지막 部首는 서로 다른 類와 연결하기 위하여 七音과 淸·濁을 신중히 고려하여 排列順序를 결정하고 있고, 동일한 類에서 이와 같은 첫 部首와 마지막 部首를 제외하고 중간 部首間 연결은 聲母 뿐만 아니라 韻母도 고려하고 있다. 즉, 韻母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部首가 있으면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들 部首間 관계는 淸·濁이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 물론 동일하거나 비슷한 字形 혹은 字義로 연결되는 각 類에 대해서는 이러한 原則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아마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3. 各 類間 연결은 七音 순서 즉,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 만일 七音 가운데 어떠한 음이 생략되면 그 다음 음으로 연결한다.
4. 各 類間 연결 가운데 七音과 淸·濁의 排列順序는 七音+全淸 → 七音+次淸 → 七音+全濁 → 七音+不清不濁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 즉, 牙音+全淸 → 舌音+全淸 → … → 牙音+次淸 → 舌音+次淸 → … → 牙音+全濁 → 舌音+全濁 → … → 牙音+不清不濁 → 舌音+不清不濁 → … → 半齒音+不清不濁 → 牙音+全淸 → …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 만일 중간에 없는 부분이 있으면 생략하고 위 순서에 따라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 그림 중 各 類間 연결은 牙音+全淸 → 齒音+全淸 → 喉音+全淸 → 脣音+全濁 → 半舌音+不清不濁의 순서와 같다. 예를 들면 8劃 部首 중 첫 번째 部首인 ‘金’ 部首는 見母, 牙音, 全淸이므로 위 排列原則에 따르고 있다. 즉, ‘里’ 部首는 半舌音+不清不濁이므로 이 다음에는 ‘金’ 部首 즉, 牙音+全淸이 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3)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

현재 많은 字典 편찬자들은 그들이 편찬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 部首의 설정 및 동일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 등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독자들은 字典을 찾을 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많은 部門에서 部首에 대한 規範化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 部首의 規範化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몇몇 字典의 部首設定 및 排列順序에 대하여 알아보자.

(1) 1949년 이후 部首 規範化 作業 進行情況

1961년 11월 中國文化部, 中國教育部, 中國文字改革委員會, 中國科學院言語研究所 및 전문가들이 합작하여 漢字查字法(檢字法이라고도 稱하나 여기에서는 中國 政府 部首改革에서 사용한 查字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한 결과 1964년 4월 4가지 草案 즉, 拼音字母查字法, 部首查字法, 四角號碼查字法, 筆形查字法을 발표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部首查字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수많은 논의 결과 1983년 6월 中國 각 方面의 요구에 근거하여 中國文字改革委員會와 文化部出版局에서는 統一漢字查字法座談會를 개최하여 統一漢字查字法委員會를 결성하였다. 이 委員會는 上海辭書出版社, 商務印書館, 漢語大字典編纂處, 漢語大詞典編纂處,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詞典室과 함께 『康熙字典』, 『辭海』, 『新華字典』의 部首를 바탕으로 字形에 근거하여 201개 部首設定에 대한 草案을 제정하였다. 漢字查字法의 整理와 規範化 작업은 현재도 계속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비교적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야만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⁴⁴⁾

하지만 위와 같은 草案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字典들은 部首의 수량 및 동일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채

44) 姜椿芳·梅益(1998 : 201~205)

택하고 있어⁴⁵⁾ 독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대 字典은 部首設定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기로 하자.

(2) 현대 몇몇 字典의 部首設定 및 동일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

現代 中國의 모든 字典은 『字彙』 214部首의 영향을 받아 214部首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字典마다 部首設定基準을 달리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가) 『中華大字典』

『中華大字典』은 中華書局이 편찬한 字典으로, 1914년에 완성하여 그 다음 해 1915년에 출판되었으며, 이는 清代 『康熙字典』 이후 약 200여년이 지난 후에 출현한 大字典인 것이다. 序言에서 『康熙字典』의 4가지 병폐에 관하여 서술하면서 이를 통하여 編者는 『康熙字典』의 착오와 결점을 감안하여 『康熙字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字典을 편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中華大字典』에서 언급한 『康熙字典』의 병폐는 다음과 같다.

解釋欠祥確，一也。訛誤甚多，二也。世俗通用之語，多未採用，三也。體例不善，不便檢查，四也。

字義에 대한 해석이 상세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음이 병폐 중 하나이다. 그릇되고 잘못된 부분이 매우 많음이 병폐 중 하나이다. 당시 통용되는 실용적이고 세속적인 글자를 많이 수록하지 않음이 병폐 중 하나이다. 또한 그 체제가 체계적이지 않아 글자를 찾을 때 불편하므로 이 역시 병폐 중 하나이다.

45) 『新華字典』(1987)에서 “本字典采用的部首跟一般字典用的部首基本相同，略有改并.”라 하고 있고, 또한 『現代漢語詞典』(1996)에서도 “本檢字表采用的部首跟一般字典的部首基本相同一略有改并.”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모두 “略有改并”이라 하여 각각의 字典마다 나름대로의 基準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中華大字典』의 部首는 『字彙』 및 『康熙字典』의 214部首에 근거하여 마찬가지로 214部首로 설정하였으나, 동일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는 몇몇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4劃 部首인 “手, 毛, 心, 爪”, 2劃 部首인 “入, 八, 儿, 几” 등과 같은 순서로 배열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는 字形의 유사성에 근거하고 있다.

(나) 『辭海』

『辭海』는 詞語와 百科詞語를 구비한 종합성 辭書이다. 『辭海』는 처음에 서신성(舒新城), 침고(沈顧), 장상(張相) 등이 主編하여 1936년 上海中華書局이 출판하여, 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辭源』과 함께 유행하였는데, 각자 나름대로 특색을 구비하였다. 하지만 몇 십년이 흘러 舊版 『辭海』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워, 1958년 봄에 中華書局辭海編輯所가 성립되었고, 다음 해인 1959년 辭海編輯委員會가 결성되어 학자들을 소집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는데, 몇 년간의 노력 끝에 1979년 10월 上海辭書出版社에서 정식으로 『辭海』 3卷을 출판하였다. 全書는 單字 14,872個, 詞目 91,706條를 수록하여, 成語, 典故, 人物, 著作, 古今地名, 歷史事件 및 各學科의 전문용어를 수록하고 있어 이는 當代 문화교육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工具書가 되었다. 全書는 部首에 따라 배열되었고, 筆劃查字表 및 漢語拼音索引이 수록되었다.

『辭海』(修訂本)의 250部首는 北京 “漢字整理查字法工作組”가 1964년에 “字形定部(字形에 근거하여 部首를 설정한다)”의 원칙에 근거하여 『字彙』 214部首를 기초로 8개의 部首를 삭제하고, 6개의 部首를 합병하였다. 그리고 10개의 部首에 대하여 분리하고, 또한 10개의 部首를 새로 바꾸었으며, 새로 40개의 部首를 증가시켜 이루어졌는데, 모든 部首를 합하면 250部首이다. 250部首 가운데 簡化部首는 25개 部首이고, 附列部首⁴⁶⁾는 30개 部首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황은 『辭海』(修訂本) 語詞分冊(上) 제6페이지

46) 附列部首란 名稱은 王平(1985)에 의하여 사용된 用語이다. 그는 正式部首의 變體部首를 附列部首라 하였는데, 예를 들면 『現代漢語辭典』(1992)의 3劃 部首 中 크(ㄱ, ㅋ, ㆁ)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 안에 들어 있는 것을 附列 部首라 하였다. 따라서 筆者 역시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部首整理情況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部首整理情況表에 따르면 『辭海』 250部首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ㄱ) 삭제된 部首는 비교적 적고, 새로 증가된 部首는 비교적 많아, 部首의 수량에서 舊部首(『字彙』 214部首)보다도 36개 部首가 더 많다.
- (ㄴ) 몇 몇 字形이 비슷한 部首는 再併합을 하였다.
- (ㄷ) 몇 몇 部首는 附列部首에서 독립해 나왔다.
- (ㄹ) 部首의 形體 구조에 대하여 簡化를 진행하였다.
- (ㄴ) 附列部首의 수량이 많다.

이렇게 하여 설정된 250개의 部首 중 동일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는 단지 몇 몇 개별 部首의 위치에 대하여 조정하였을 뿐, 기본적으로는 1劃 部首의 배열 순서인 一, 丨, 丿, 丶, 乙을 기준으로하여 『字彙』 214部首의 排列順序를 따르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다) 『新華字典』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新華字典』의 189部首 역시 『字彙』 214部首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14部首 중 37개 部首를 삭제하였고, 4개 部首를 병합하였다. 게다가 10개 部首를 분리하였고, 새로 9개 部首를 바꾸었으며, 다시 6개 部首를 증가시켜 189개의 部首를 설정하였다. 《新華字典》 189部首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ㄱ) 삭제된 部首가 비교적 많고, 새로 증가된 部首가 비교적 적다. 수량 상에서 舊部首(『字彙』 214部首)와 비교해보면 25개 部首가 적다. 이것은 梅膺祚의 『字彙』 이후 中國 字典의 部首에 대한 또 한 차례의 비교적 커다란 簡化를 진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 (ㄴ) 分立⁴⁷⁾하고 附列한 部首가 비교적 많다. 189개의 部首는 筆劃을 중

47) 分立이란 名稱 역시 王平(1985)에 의하여 사용된 用語이다. 그는 正式部首와 變體部首로 나누고 變體部首가 새로 正式部首化 되어 部首로 사용된 것

심으로 1劃 部首~12劃 以上 部首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고 동일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는 『辭海』와 마찬가지로 1劃 部首인 一, 丨, 丿, 丶, 乙 기준으로 部首의 첫 畫順을 파악하여 이를 1劃 部首의 排列順序대로 배열하였다.

(라) 기타 사항

『辭源』은 원래 ‘肉’ 部首의 附列部首로 ‘月’ 部首가 설정되었으나, 다시 分立하여 ‘月’ 部首와 ‘肉’ 部首를 설정하여 다른 字典에서 ‘月’ 部首에 속한 글자들 屮 服, 朋, 朝 등은 ‘月’ 部首에 들어있고, 肥, 股, 胡 등은 ‘肉’ 部首에 들어있다.

『辭海』는 ‘主’ 部首를 설정하여 責, 表, 毒, 素 등의 글자를 ‘主’ 部首에 속하게 하고 있으나, 『新華字典』은 ‘責’을 ‘一’ 部首와 ‘貝’ 部首로, ‘表’는 ‘一’ 部首와 ‘衣’ 部首로, ‘毒’은 ‘一’ 部首와 ‘毋’ 部首로, ‘素’는 ‘糸’ 部首에 각각 귀속시키고 있다. 또한 『辭海』는 ‘夷’ 部首를 설정하여 奉, 春, 秦, 泰 등의 글자를 귀속시키고 있으나, 『現代漢語詞典』은 ‘奉’을 ‘一’ 部首와 ‘大’ 部首에, ‘春’을 ‘日’ 部首에, ‘秦’을 ‘禾’ 部首에, ‘泰’를 ‘水’ 部首에 각각 귀속시키고 있다. 또한 예를 들면 日, 曰, 目 部首에 대하여 『漢語大詞典』과 『漢語大字典』 및 『四角號碼新詞典』에서는 위 3개 部首를 하나로 통합하여 ‘日’ 部首에 귀속시키고 있고, 『辭源』에서는 ‘日’ 部首와 ‘曰’ 部首를 분리하여 部首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辭海』에서는 ‘日’ 部首와 ‘曰’ 部首를 하나로 통일하여 ‘日’ 部首에 귀속시키고 있고, 『現代漢語辭典』, 『新華字典』, 『新編小學生字典』에서는 ‘日’ 部首와 ‘曰’ 部首를 분리하여 ‘曰’ 部首에 ‘目’ 部首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辭源』에서는 ‘人’ 部首, ‘儿’ 部首, ‘丫’ 部首를 각각 분리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漢語大詞典』, 『漢語大字典』

을 分立部首라 하였다. 예를 들면, 刀部首(正式部首)에서 丩部首(變體部首)가 나뉘어 새로 部首를 設定하였고, 水部首(正式部首)에서 彡部首(變體部首)가 分立된 것 등이다. 이는 大量的 后起字와 簡化字가 通用되면서 變體部首의 使用頻도가 增大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附列部首 中에서 變體部首를 獨立的으로 設定하게 되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部首의 數量은 끊임 없이 增加하게 될 것이다. 部首의 增加를 抑制하기 위하여 附列部首의 設定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典』에서는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人’ 部首에 포함시키고 있다. (『辭海』, 『現代漢語詞典』, 『新華字典』, 『新編小學生字典』에서는 ‘人’ 部首는 ‘儿’ 部首를 포함시키고 ‘丫’ 部首는 독립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部首의 설정(심지어 동일 部首의 筆劃의 劃數도 다른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鼎 部首는 『辭源』에서는 13劃 部首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辭海』에서는 12劃 部首으로 규정하고 있다)도 다르고 또한 部首의 排列順序 역시 달리하고 있어 독자들이 字典을 찾을 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수많은 독자들은 현대 字典의 部首設定 및 排列順序가 規範化 되길 희망하고 있다.

2. 部首의 比較

지금까지 몇 몇 字典의 部首設定 및 排列原則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字典이 편찬된 시기의 사회적 환경 및 字典 편찬자의 사상 그리고 書體의 변화 등으로 각각의 字典마다 部首의 내용에 공통적인 부분과 部首間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위에서 설명한 部首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字典마다 部首設定 및 排列順序의 共通點과 差異點에 대하여 살펴본다.

1) 字典間 部首의 共通點

(1) 部首의 設定

(가) 簡略함으로 全體를 統制한다는 原則

이 原則은 모든 字典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許慎은 문자의 구조와 형태를 귀납하여 字群을 취합하여 字根으로써 첫 머리에 세우고, 그것을 따르는 문자들을 모아 한 部類를 설정하였고, 梅膺祚는 楷書體

로 된 문자의 구조와 형체를 귀납하여 字群을 취합하고 동일한 字形(偏旁)을 따르는 글자들을 분류한 후, 字根이 되는 字形(偏旁)을 첫 머리에 세위 部首를 설정하였다. 現代 各種字典 역시 梅膺祚의 사상을 이어 받아 部首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部首를 設定한 목적은 字典에 수록된 모든 글자를 보다 간편하고 간략하게 통제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다. 部首의 기능에 대하여 段『注』敍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살펴보자.

聖人之造字，有義以有音，有音以有形。學者之識字，必審形以知音，審音以知義。聖人造字，實自象形始。故合所有之字，分別其部爲五百四十，每部各建一首，而同首者則曰，凡某之屬皆從某。于是形立而音義易明，凡字必有所屬之首。五百四十字可以統攝天下古今之字。此前古未有之書。……若網在綱，如裘挈領。討原以納流，執要以說詳。蓋舉一形以統衆形，所謂櫛括有條例也。就形以說音義，所爲剖析窮根源也。

聖인이 글자를 만들에, 뜻하는 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가 있게 되고, 소리가 있음으로써 形體가 있게 된다. 학자들이 글자를 배움에 있어, 그 形體를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그 소리를 알게 되고, 그 소리를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그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聖인이 글자를 만들에 실로 象形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字를 합하여 그 部類를 분별하니 540部가 되었으며, 각 部마다 하나의 首를 세웠는데, 首가 되는 字에는 “凡某之屬皆從某(某部에 속한 字는 모두 某部를 따른다)”라 하였다. 그래서 形이 設定되면 音과 義는 쉬이 분명하게 되니, 모든 字는 각각의 首에 屬하게 되었다. 그래서 540字로써 온 天下의 古今의 글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前代未聞의 著作인 것이다. …… 그물에 그것을 버티는 줄이 있는 듯하고, 갯물에 가장 중요한 것을 차는 듯하다. 또한 그 根源을 파악함으로써 모든 것을 평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점을 파악함으로써 상세한 설명을 加하고 있다. 무릇 하나의 形을 가지고서 모든 形을 체계화하니, 문장을 씬에 법칙이 있다 할 수 있다. 形으로써 音과 義를 말함에 온갖 根源을 쪼개어 밝히는 듯하다.

段玉裁의 이와 같은 해석은 『說文』 部首와 후세의 일반적인 字典에 공통

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屬性 — 分部立首以歸字(부류별로 분류하여 분류된 부류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의미 혹은 공통적인 字形을 部首로 설정하여 字典에 수록된 나머지 글자들을 체계적으로 歸屬시킨다)를 설명하고 있다.

(나) 併합의 原則

이 原則은 동일한 字形에 의한 併합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說文』의 原則 즉, 分離의 原則(直接歸依原則, 分別通俗原則, 獨立設定原則)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지만, 梅膺祚는 小篆體로 이루어진 540部首를 楷書體로 바꾸어 540部首 중 동일한 字形이 있으면 대표되는 字形에 併합하여 部首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字形에 의하여 併합된 部首는 劃數別로 분류하여 동일한 劃數의 部首를 併합하고 있다. 梅膺祚의 部首設定 목적은 보다 실용적이고 보다 편리하게 字典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540部首를 독자들이 알기쉬운 동일한 字形에 기준을 두고 214部首로 併합하고 있다.

『字彙』 이후 현대까지 各種字典의 部首設定은 梅膺祚의 思想을 계승하여 214部首를 根幹으로 部首를 設定하고 있다. 게다가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는 簡化字를 표제자로 삼고 있어 部首設定이 더욱 簡化되는 경향 즉, 部首劃數의 簡化, 部首數量의 簡化 등 추세에 맞추어 향후 併합의 原則은 계속 準用될 것이라 여겨진다.

(다) 1劃 部首의 設定

許慎에 의하여 창안된 540部首 設定 목적은 당시 사회적 영향 즉, 문자를 자의대로 해석하여 古文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문자의 本義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시의 모든 문자를 『說文』에 수록하게 되었고, 비록 文章 중에 ‘乙’ 部首를 제외하고는 사용되는 예를 찾아볼 수 없는 10개의 1劃 部首를 설정하였다.

梅膺祚는 許慎의 1劃 部首에 대한 설정 목적과는 확연히 다르게 6개의 1

劃 部首를 설정하였다. 1劃 部首의 組合으로 모든 문자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1劃 部首는 모든 문자를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1劃 部首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1劃 部首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1劃 部首의 排列順序는 모든 劃數 특히 동일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를 통제하도록 하는 基準이 되었다. 이러한 그의 思想은 이후의 字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現代 各種字典 역시 梅膺祚의 思想을 받아들여 1劃 部首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現代 各種字典의 1劃 部首는 一, 丨, 丶, 丿, 乙 등 5개의 部首로 고정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部首가 점차 簡化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部首間 排列順序

(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字形으로 연결

이는 許慎이 『說文』 540部首를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열하기 위하여 고안해 낸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를 흔히 據形系聯의 原則이라 하는데, 『說文』 540部首 가운데 약 80% 이상이 되는 434개의 部首가 字形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原則의 내용에는 두 가지 방법이 포함된다. 하나는 前 部首와 서로 같거나 비슷한 字形을 지닌 部首가 있으면 바로 뒤에 연결시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前 部首와 반대되는 字形을 지닌 部首가 있으면 바로 뒤에 연결시키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을 취한 목적은 독자들이 字典을 찾을 때 보다 편리하기 때문이며 비록 字音を 모른다 하더라도 보다 쉽게 글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梅膺祚는 『字彙』 214部首 가운데 동일한 劃數의 部首인 67개의 部首間 27개 부분을 字形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間 배열 역시 동일한 劃數의 部首 중 몇몇 부분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字形으로 연결시켜 許慎이 설정한 原則을 準用하여 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字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字義로 連結

許慎은 『說文』 540部首를 據形系聯의 原則으로 배열하였는데, 모든 部首를 字形의 유사함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字形으로 연결이 불가능한 부분에서는 字義로 서로 연결시켰다. 즉, 前後 部首의 本義가 유사하든지 혹은 部類別(예를 들면 신체류, 조류, 금속류, 무기류 등)로 분류하여 연결시키고 있는데 540部首 가운데 이렇게 연결된 部首는 79개의 部首이다. 이는 據形系聯의 原則과 마찬가지로 前 部首와 字義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바로 뒤에 연결시키고 만일 前 部首와 字義上 서로 반대되는 部首가 있으면 이 또한 바로 뒤에 연결시켜 독자들이 字典을 찾을 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梅膺祚 역시 이러한 원칙을 準用하여 『字彙』 214部首 중 31개 部首間 15개 부분을 字義로 연결시키고 있다. 물론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찾아 볼 수는 있으나 그리 많지 않다.

(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字音으로 연결

許慎이 540部首를 배열하면서 字形 및 字義로 서로 연결시킬 수 없는 부분에서는 字音의 유사성으로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部首에 대하여 연결이 불가능한 獨立部首로 설정하고 있으나, 漢字는 形·音·意가 서로 유기적 통일체로 구성되어 있음에 착안하여 본고에서 筆者는 이와 같은 獨立部首에 대하여 字音으로의 연결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540部首 중 16개의 部首가 字音으로 연결되고 있다.

梅膺祚는 당시 사회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韻書의 영향을 받아 214部首의 排列順序를 字音(聲母, 七音과 淸·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字形, 字義, 字音(같은 聲母)로 연결되는 부분을 각각의 類로 大別하였고, 各 類間 연결은 七音과 淸·濁을 고려하여 배열하였는데 이의 排列順序는 七音+全淸 → 七音+次淸 → 七音+全濁 → 七音+不淸不濁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 즉, 牙音+全淸 → 舌音+全淸 → … → 牙音+次淸 → 舌音+次淸 → … → 牙音+全濁 → 舌音+全濁 → … → 牙音+不淸不濁 → 舌音+不淸不濁 → …

→ 半齒音+不清不濁 → 牙音+全清 → …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 만일 중간에 없는 부분이 있으면 생략하고 위 순서에 따라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214部首의 排列順序는 音韻學的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실용적인 字典이 되기 위하여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는 許慎의 據形系聯 原則을 이어받고 있어 字形으로 연결시키고 있을 뿐 字音으로 연결되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

2) 字典 間 部首의 差異點

(1) 部首의 設定

部首의 설정은 다양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보다 簡化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部首의 簡化란 部首의 수량 뿐만 아니라 字體의 측면에서도 簡化字로 변화되고 있다. 즉, 許慎은 『說文』에 수록된 9,353字를 대상으로 이들의 의미를 결정짓는 부분을 귀납한 결과 총 540개의 중심이 되는 글자를 部首로 설정하였으며, 梅膺祚는 『字彙』에 수록된 33,179字를 대상으로 이들의 字形을 중심으로 劃數에 따라 분류하고 취합한 결과 214개의 중심이 되는 字形(偏旁)을 部首로 설정하였다.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는 『字彙』 214部首의 영향을 받아 이를 削除, 併合, 增加를 통하여 보다 실용적으로 部首를 설정하고 있다.

(가) 1劃 部首의 設定

1劃 部首는 許慎에 의하여 창안되었다. 그는 540개의 部首 중 10개의 1劃 部首를 설정하였으나, 이는 단지 本義를 파악하고 前後 部首間 연결을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梅膺祚는 이와 달리 1劃 部首의 설정에 대하여 나머지 部首의 설정 및 排列順序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모든 문자는 1劃 部首의 組合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1劃 部首는 모든 部首 뿐만 아니라 모든 문자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梅膺祚의 思想은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現代 各種字典의 1

劃 部首를 살펴보면 ‘丿’ 部首를 ‘乙’ 部首에 併合하여 部首를 더욱 簡化시키고 있다.

(나) 1劃 部首 이외의 部首 設定

許慎은 1劃 部首 혹은 그 어떠한 部首를 막론하고 部首의 설정 목적은 本義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540部首를 살펴본다면 540部首는 시대적 및 참고한 자료의 한계로 引伸意와 假借意를 本義로 간주하여 해석한 部首도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540部首는 당시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당시의 모든 사과의 범주를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어 540部首는 온 宇宙를 포괄한다는 의미로 설정되었고 540部首의 排列順序는 온 宇宙의 변화 싸이클을 의미하고 있다.

許慎과는 달리 梅膺祚는 『易』에 대한 연구 결과 당시 모든 문자는 數로 이루어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리고 모든 數의 기초는 ‘1’에서부터 시작하므로 1劃은 모든 漢字를 통제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모든 문자는 1劃의 組合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간주하여 1劃 部首의 設定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1劃 部首는 이하의 모든 部首를 통제할 수 있고 게다가 1劃 部首의 排列順序는 동일한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를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214部首는 당시의 세계관 혹은 사과의 범주라고는 할 수 없지만 1劃 部首의 排列順序 및 十二地支의 排列順序(干支에 내재된 紀數思想)를 통하여 許慎과 마찬가지로 無限의 변화 싸이클을 구성하고 있다.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는 梅膺祚의 思想을 이어받아 214部首를 根幹으로 설정되었으나 字體와 部首 簡化의 추세로 몇 몇 部首가 동일한 字形에 併合되고 附列部首에서 독립하여 部首로 설정되는 등 部首의 수량이 보다 簡化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部首 間 排列順序

(가) 1劃 部首의 排列順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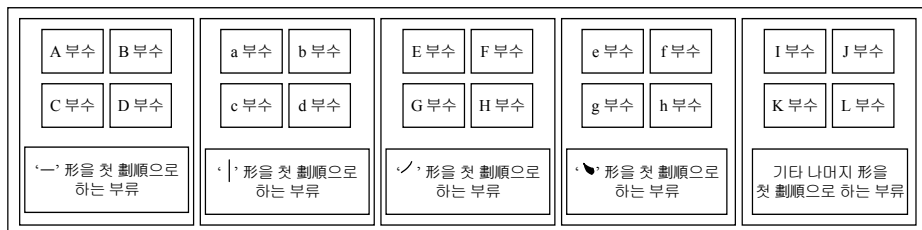
1劃 部首設定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1劃 部首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1劃 部首의 排列順序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梅膺祚는 1劃 部首의 排列順序에 대한 基準을 聲母(七音, 淸·濁)로 하였다. 또한 1劃 部首의 배열을 기준으로 이하 모든 部首間 배열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現代 各種字典의 1劃 部首의 排列順序는 그 안에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여 배열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部首間 排列順序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열하고 있다. 이는 音韻學的 知識이 없는 독자들일지라도 字典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字形으로 연결

許慎이 540部首를 배열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字形으로 연결시키고 있고 연결이 불가능한 부분에서는 字義 및 字音으로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梅膺祚는 許慎의 이러한 思想에 기초하여 동일한 劃數의 部首間 연결 중 몇몇 부분을 이 원칙을 준용하고 있으나 214部首는 기본적으로 聲母(七音, 淸·濁)에 근거하여 연결시키고 있다.

하지만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는 許慎의 據形系聯의 原則을 변형시켜 동일한 劃數의 部首間 배열에 이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서로 같은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즉, 漢字의 첫 畫順을 기준으로 ‘一’ 形, ‘丨’ 形, ‘丿’ 形, ‘丶’ 形 그리고 기타 形으로 분류한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4> 와 같다.



<그림 4>

위와 같이 분류한 후 1劃 部首의 排列順序에 따라 동일한 劃數의 部首를 배열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許慎의 據形系聯의 原則과 근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許慎은 字形으로 연결이 불가능한 부분에서 字義 및 字音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나,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는 위의 ‘一’ 形, ‘丨’ 形, ‘ノ’ 形, ‘丶’ 形으로 분류한 후 1劃을 畫順으로 하지만 이와는 다른 字形을 기타로 분류하여 가장 마지막에 배열하고 있다.

(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字音으로 연결

許慎은 540部首를 배열하면서 字形으로 연결이 불가능한 부분에서는 字義 및 字音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哭’(25) 部首와 ‘走’(26) 部首, ‘蕘’(122) 部首와 ‘宀’(123) 部首, ‘矛’(127) 部首와 ‘放’(128) 部首 등 540部首 중 약 3% 정도인 16개의 部首를 字音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매우 적은 수치라 할 수 있지만 그는 540部首의 배열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몇몇 부분에서 字音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하지만 梅膺祚는 214部首를 배열하면서 설정한 大原則은 字音(聲母, 七音, 清·濁)에 의한 연결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사회적 상황 즉, 韻書의 영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部首 배열 방식은 音韻學的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排列은 許慎의 據形系聯의 原則을 준용하고 있어 字音으로 연결되는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IV. 部首 規範化 方案

1. 部首의 設定

部首는 各 시기마다 시대적·사회적, 字典 편찬자의 사상적, 漢字의 字形 변천, 다양한 字典 편찬 목적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말미암아 각각 나름대로 특색을 구비하면서 設定되었고, 部首를 설정한 목적은 독자들이 字典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정된 部首는 『說文』 540部首에서 『字彙』 214部首로,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는 『字彙』 214部首를 根幹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 보다는 좀 더 簡素化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部首 설정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原則이 있다. 첫째는 ‘六書의 原則’으로 이는 매우 엄격하게 意部에 초점을 맞추어 部首의 多少와 排列 順序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原則에 의하면 『說文』 540部首가 매우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檢字의 原則’으로 이는 部首의 감소를 요구한다. 통용되는 書體를 바탕으로 字音으로 혹은 筆劃의 多寡에 따라 部首를 배열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이고 편리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字彙』 214部首는 ‘檢字의 原則’에 보다 적합하다⁴⁸⁾고 할 수 있다.

筆者는 본론에서 이미 部首 다양화 원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원인으로 部首의 개념이 확대되었고 또한 部首 설정 목적도 변하게 되었다. 현대 대부분의 字典들은 字典 편찬 목적에 따라 部首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字典 편찬 목적의 공통점은 實用性이라 할 수 있다. 이에 筆者 역시 본론에서 언급한 部首 다양화의 원인과 各種字典의 部首 比較를 통하여 部首 設定의 規範化 방안 목적을 실용성에 두고자 한다. 그리고 部首의 削除, 併合, 增加에 대한 筆者의 見解는 梅膺祚가 『說文』 540部首를 어떠한 원칙에 따라 削除하였고 또한 併合하였으며 게다가 새로 생겨난 글자들을

48) 王力 著, 李鍾振·李鴻鎮 譯(1980 : 164~165)

수록하기 위하여 어떠한 部首들을 增加시켰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에 기초를 두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부분들은 선행 연구를 병행하면서 部首 設定에 대한 規範化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筆者가 제시하는 部首 設定에 대한 規範化 方案은 본고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만일 部首에 대한 또 다른 多方面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 연구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을 是認하는 바이다.

(1) 字典의 편찬 목적에 따라 部首 설정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현대 대부분의 字典은 대체로 ‘檢字의 原則’을 바탕으로 部首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原則을 고려한다면 『說文』 540部首는 部首의 數量이 지나치게 많아 독자들이 글자를 찾을 때 불편함이 있다. 部首 設定은 540部首 이후 지속적으로 簡化되어 왔고 게다가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는 대체로 『字彙』 214部首를 根幹으로 설정되었으므로 部首 設定은 214部首를 기본으로하여 削除와 併合 등의 방법을 통하여 部首에 대한 簡化를 진행하는 것이 현대 字典의 추세에 좀 더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簡化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 併合과 削除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字彙』 214部首는 『說文』 540部首에 대하여 併合과 削除의 방법을 통하여 설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併合의 基準은 梅膺祚가 小篆體를 표제자로 삼은 540部首를 당시 통용되던 書體인 楷書體로 併合한 것과 마찬가지로 現行 書體인 簡化字를 표제자로 삼아 併合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削除의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梅膺祚가 『字彙』 214部首를 설정할 때 『說文』 540部首 中 어떠한 部首를 削除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다음은 『說文』 540部首 가운데 『字彙』 214部首에서 削除된 部首이다.

𠂔(24), 𠂔(36), 𠂔(45), 𠂔(52), 言(57), 𠂔(61), 𠂔(63), 𠂔(72), 𠂔(80), 𠂔(88), 𠂔(97), 𠂔(100), 𠂔(110), 𠂔(125), 𠂔(130), 𠂔(139), 𠂔(148), 𠂔(189), 𠂔(192), 𠂔(210), 𠂔(220), 𠂔(230), 𠂔(233), 𠂔(239), 𠂔(244), 𠂔(245), 𠂔(261), 𠂔(262), 𠂔(285), 𠂔(315), 𠂔(319), 𠂔(321), 𠂔(322), 𠂔(341), 𠂔(351), 𠂔(373), 𠂔(376),

𠂇(376), 𠂈(402), 𠂉(425), 𠂊(431), 𠂋(442), 𠂌(448), 𠂍(456), 𠂎(464), 𠂏(472), 𠂐(485), 𠂑(501), 𠂒(505), 𠂓(522), 𠂔(527), 𠂕(528)

(가) 동일한 字形을 重疊하여 사용한 글자가 통행되고 있고 또한 部首로 設定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部首는 다른 部首 즉 동일한 字形(偏旁)을 지닌 部首에 屬字로 併合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조성된 글자가 통행되고 있지 않다면 削除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𠂒’와 같은 글자가 통행되고 있으면 ‘又’ 部首에 併合 가능하지만, 만일 통행되고 있지 않다면 削除 가능하다.

(나) 본고 본론 부분에서 『說文』 540部首의 排列原則을 論하면서 『說文』 540部首 중 獨體字와 合體字의 構成 비율에 대한 내용을 이미 <표 4>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540部首 중 合體字(形聲字와 會意字)로 이루어진 部首는 대략 35%~4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 合體字가 통행되고 있고 또한 部首로 設定되었다면 동일한 字形(偏旁)을 지닌 部首에 屬字로 併合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合體字가 통행되고 있지 않다면 削除 가능하다. 예를 들면 ‘𠂔’와 같은 글자가 통행되고 있으면 ‘丰’ 部首 혹은 ‘刀’ 部首에 併合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𠂔’ 글자의 本義를 파악하여 의미상 보다 가까운 部首에 併合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部首의 簡化를 위해서는 併合과 削除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현재 통행되는 書體인 簡化字를 部首의 표제자로 設定하여 동일한 字形(偏旁)의 部首에 병합하고 또한 동일한 字形을 重疊 사용하여 조성된 글자를 部首로 設定한 경우나 혹은 合體字를 部首로 設定한 경우 部首의 併合과 削除에 대한 기준은 이러한 글자가 통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만일 통행되고 있으면 併合, 통행되고 있지 않다면 削除하는 것이 部首의 簡化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許慎은 540部首를 設定하면서 10개의 部首 즉, 一(1), 丨(10), 丶(174), ㇇(413), 丿(446), 冫(447), ㇈(448), 丨(454), ㇉(456), 乙(514)를 1劃 部首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그는 1劃 部首를 本義를 파악하고 部首間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배열을 위하여 설정하였을 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梅膺祚는 『字彙』 214部首를 設定하면서 1劃 部首의 設定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意義를 부여하였다. 그는 6개(一, 丨, 丶, 丿, 乙, 丨)의 1劃 部首를 設定하였으며 모든 문자의 構成은 一, 丨, 丶, 丿, 乙, 丨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게다가 1劃 部首는 모든 문자의 첫 畫順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1劃 部首는 나머지 部首를 통제할 수 있고, 또한 모든 屬字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겼다.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 역시 梅膺祚의 1劃 部首에 대한 意義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으나 ‘丨’ 部首의 設定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乙’ 部首에 ‘丨’ 部首를 併合하고 있다.

이에 ‘丨’ 部首의 設定 여부에 대한 筆者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劃 部首는 漢字의 첫 번째 畫順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一, 丨, 丶, 丿은 첫 번째 畫順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乙’ 과 ‘丨’은 첫 번째 畫順으로 사용되는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一, 丨, 丶, 丿 이외의 나머지 첫 번째 畫順으로 사용되는 字形(예를 들면 ㄱ, ㄷ, ㄴ, ㄹ)을 ‘乙’ 部首를 설정하여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部首의 簡化 추세에도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3) 후에 새로 생겨난 글자(后起字)에 대하여 어떠한 部首에 歸屬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部首를 增加시켜야 하는데, 部首의 設定 원칙을 통하여 이미 살펴보았듯이 모든 后起字에 대하여 통일되게 그것을 묶어야 한다. 梅膺祚는 214部首를 설정하면서 『說文』 540部首에 없는 部首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즉, 一, 丨, 丿, 无, 父, 宀, 内, 艮 등 8개 部首를 설정하여 『說文』 편찬 이후 明代까지 생겨난 后起字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통일되게 각각의 部首에 통합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父’ 部首를 새롭게 설정하여, ‘爸’, ‘爹’ 등의 后起字를 귀속시키고 있다.

(4)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를 살펴보면 동일한 部首인데 繁體字와 簡化字로 나뉘어 각각 部首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刀’ 部首와 ‘刂’ 部首, ‘水’ 部首와 ‘氵’ 部首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 『說文』 540部首의 設定

原則 中 分別統屬原則을 根據로 살펴본다면 본래는 동일한 글자였지만, 시대적·사회적 요인으로 字義上으로는 동일하지만 字形上 변화하여 구조와 形體가 서로 달라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불어난 글자들이 어떤 글자들은 此形 또한 다른 글자들은 彼形을 취하게 되면, 그 淵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分別하여 部首를 설정하였다. 이는 ‘六書의 原則’에 합당한 部首設定이므로 이러한 原則을 바탕으로 한다면 部首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部首의 簡化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대 各種字典의 部首設定은 보다 실용적인 ‘檢字의 原則’이 ‘六書의 原則’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部首의 簡化를 고려한다면 簡化字를 部首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字義上 동일한 簡化字와 繁體字 각각 개별적으로 部首가 설정되었다면 簡化字를 部首로 설정하고 繁體字를 簡化字로 된 部首에 附列하여 설정한다면 部首의 增加를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部首 簡化의 추세에도 적합하게 될 것이다.

2. 部首間 排列 順序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독자들에게 글자를 찾을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部首設定 뿐만 아니라 部首의 排列順序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部首間 排列順序라 함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즉, 『說文』 540部首는 劃數로 구분되어 있지않아 540部首 전체의 排列順序를 의미하고 『字彙』 214部首 이후 현대 各種字典의 部首 배열이라고 하면 동일한 劃數의 部首間 배열을 의미한다.

各種字典의 部首는 설정 뿐만 아니라 部首間 排列順序 역시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說文』 540部首는 據形系聯의 原則을 바탕으로 배열되어 있어 몇 몇 부분⁴⁹⁾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原則을

49) 지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說文』 540部首의 排列原則은 據形系聯의 原則을 위주로 하고 字形으로 연결이 불가능한 부분은 字義 및 字音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즉, 字形으로는 434개의 부분, 字義로는 79개의 부분, 字音으로는 16개의 부분이 서로 연결되고 있고, 나머지 10개의 부분은 연결이 불가능하다. 이들 10개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巫(149)와 甘(150), 井(177)과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540部首를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분류되지 않아 하나의 글자를 찾기 위하여 540部首를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 살펴야 하기 때문에 현대적 시각으로 살펴본다면 실용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據形系聯의 原則은 『字彙』 214部首에 이르러 筆劃의 多寡에 따라 部首를 배열하고 있어 이는 當時로써는 매우 획기적이라 할 수 있었다. 게다가 동일한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는 1劃 部首의 排列順序에 근거하여 聲母를 위주로 배열하고 있다. 하지만 音韻學적 지식과 『說文』 540部首의 排列原則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字彙』 214部首 중 동일한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를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는 『字彙』 214部首와 마찬가지로 1劃 部首의 排列順序를 기준으로 배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1劃 部首의 설정 및 排列順序가 字典 편찬자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簡化字를 部首로 設定하고 있는데, 이렇게 簡化字를 部首로 설정하게 된다면 多劃 部首의 設定은 감소하는 반면 少劃 部首의 設定은 증가하게 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3劃 部首~6劃 部首의 數量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排列原則을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劃 部首의 排列順序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러한 狀況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까지 『說文』 540部首, 『字彙』 214部首 및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間 排列順序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取하고 또한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規範化 방안을 제시해본다. 여기에서 筆者가 제시하는 部首間 排列順序에 대한 規範化 方案은 部首設定에 대한 規範化 方案과 마찬가지로 본고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이 부분과는 다른 내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을 是認하는 바이다.

𠂇(178), 𠂉(210)과 之(211), 𠂊(243)과 𠂋(244), 𠂌(334)와 后(335), 𠂍(405)과 函(406), 𠂎(431)과 不(432), 𠂏(442)와 女(443), 率(470)과 心(471), 車(498)와 𠂐(499)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다.

(1) 1劃 部首는 一, |, 丶, 丿, 乙 등 5개의 部首를 設定 한 후 이의 排列順序를 기초로 동일한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를 통제하도록 한다. 이의 順序는 『說文』 540部首의 排列順序 즉, 一(1), | (10), 丶(174), 丿(446), 乙(514)를 따르고자 한다. 왜냐하면 『說文』 540部首의 排列順序는 無限의 變化 사이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위의 一, |, 丶, 丿 이외에 '乙' 部首를 설정하여 '丨' 및 기타 다양한 變形字를 '乙' 部首에 併合하고 이러한 變形字를 첫 畫順으로 하는 部首가 있으면 동일한 劃數의 部首를 배열함에 가장 나중에 배열한다.

(3) 동일한 劃數의 部首들을 첫 畫順에 따라 '一' 形, '丨' 形, '丶' 形, '丿' 形, '乙' (變形字 包含) 形으로 分類하여 배열한다.

(4) 동일한 劃數의 部首 가운데 같거나 비슷한 혹은 반대되는 字形이 있으면 이 역시 한 部類로 분류하여 배열하는데, 만일 위의 (3)項의 原則과 충돌할 경우에는 (4)項의 原則을 우선 순위로 삼아 배열한다. 이는 『說文』 540部首의 排列原則을 근거로 삼고 있다. 字義 역시 字形과 마찬가지로이다. 만일 簡化字가 部首로 設定되었다면 簡化字의 字形을 기준으로 하여 배열한다.

(5) (3)項과 (4)項 처럼 분류하여 부류별로 배열하되, 각 부류間 연결은 前後 字形을 고려하여 배열한다.

지금까지 본고의 연구 결과에 따른 部首設定 및 排列順序에 대한 規範化 方案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와 같은 規範化 方案을 근거로 현대 字典의 편찬 목적에 부합되는 部首表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部 首 表】

1劃 部首：一, 丨, 丶, 丿, 乙(丨 ㇀ ㇁, ㇂, ㇃, ㇄)

2劃 部首：冫, 匚, 冂, 几, 凵, 十, 冫(刀), ㇆, 卜, 一, 彳, 讠(言), 冫, 勹, 亻
(人), 儿, 入, 八, 又, 厶, 匕, 力, 卩

3劃 部首：土, 士, 工, 干, 井, 大, 小, 尢(兀), 弋, 寸, 口, 凵, 冂(門), 巾, 山,
宀, 广, 彳(水), 彡, 彳, 彡, 夕, 夕(食), 彡, 彡(糸, 系), 女, 子,
己, 弓, 馬(馬), 彡(彡, 互), 尸, 彡, 邑(邑), 邑(阜), 飛(飛)

4劃 部首：戈, 犬, 牛, 无, 夕, 车(車), 韋(韋), 木, 支(鼓), 支(攴), 牙, 另, 片,
戶, 日, 日, 月, 見(見), 貝(貝), 止, 比, 卜(心), 斗(鬥), 火(火), 文,
方, 手, 爪(爪), 毛, 氏, 气, 風(風), 斤, 欠, 父, 爻, 爻, 母

5劃 部首：石, 玉, 瓦, 龙(龍), 鳥(鳥), 示, 目(目), 皿, 田, 内, 白, 疒, 彡, 玄,
立, 穴, 瓜, 金(金), 生, 矢, 禾, 用, 矛, 疒, 皮, 甘

6劃 部首：老, 长(長), 而, 耳, 臣, 至, 頁(頁), 西, 网, 肉, 虫, 虍, 羊, 衣, 自,
舟, 血, 米, 耒, 行, 缶, 舌, 竹, 艸, 色, 舛, 羽, 聿, 艮, 白

7劃 部首：麥(麥), 豆, 豕, 豸, 赤, 走, 足, 身, 辰, 酉, 里, 鹵(鹵), 辛, 角, 谷, 采

8劃 部首：雨, 魚(魚), 龍(龍), 青, 齒(齒), 隹, 非, 隶

9劃 部首：面, 韭, 音, 首, 革

10劃 部首：鬲, 骨(骨), 鬼, 高, 鬯, 髟

11劃 以上 部首：鹿, 麻, 黑, 黃, 黍, 鼎, 鼠

筆者는 214部首를 기준으로 併合, 削除, 增加를 통하여 201部首를 설정하였다. 위 部首表에 대한 部首設定 및 排列順序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部首에 대한 다른 방면의 연구 결과에 따라 部首 規範化에 대하여 다른 方案이 도출될 수 있고 또한 다음에 제시되는 基準 設定과 다른 基準을 設定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1劃 部首는 部首 標準化 方案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였다.
2. 部首의 併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字形을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匸’ 과 ‘匚’ 는 字形이 비슷하므로 ‘匸’(혜 : 덮다. 감추다) 部首를 ‘匚’(匚 : 상자) 部首에 併合하였다. 또한 ‘攴’(攴 : 천천히 걷다) 部首는 ‘攴’(攴 : 뒤져서 오다) 部首에, ‘辵’(辵 : 쉬엄쉬엄 가다) 部首를 ‘走’(走 : 달리다) 部首에 각각 併合하였다.
3. 214部首 가운데 合體字가 部首로 설정된 경우 다른 部首에 併合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併合의 기준은 字形 및 字義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香’ 部首와 ‘黍’ 部首를 ‘禾’ 部首에, ‘鼓’ 部首를 ‘支’ 部首에 각각 併合하였는데 이는 併合되는 部首의 字義를 고려하였으며, ‘龠’ 部首는 ‘人’ 部首에 各各 併合하였는데 이는 併合되는 部首의 字形을 고려하였다.
4. 같은 字形을 重疊 사용하여 이루어진 合體字가 部首로 설정된 경우, 이러한 部首를 다른 部首에 併合하였다. 예를 들면 ‘二’ 部首는 ‘一’ 部首를 重疊 사용하여 조성된 部首이므로 이를 ‘一’ 部首에 併合하였다. 그리고 ‘屮’ 部首와 ‘艸’ 部首가 있는데 ‘屮’(艸의 古字) 部首를 ‘艸’ 部首에 併合하였다.
5. 簡化字가 部首로 설정된 경우 簡化字와 비슷한 字形의 部首는 併合하였다. 예를 들면 ‘鬥’ 部首의 簡化字는 ‘斗’ 이므로 ‘斗’ 部首에, ‘鼻’ 部

首는 ‘自’ 部首에, ‘齊’ 部首는 ‘文’ 部首에 各各 併合하였다.

6. 部首의 排列은 部首 規範化 方案을 그대로 沿用하였다. 즉, 排列順序는 1劃 部首의 排列順序를 기준으로 배열하고, 동일한 劃數의 部首를 첫 畫順에 따라 ‘一’ 形, ‘丨’ 形, ‘丶’ 形, ‘ノ’ 形, ‘乙’ 形(變形字 包含)으로 분류한 후 ‘一’ 形이 끝나면 ‘丨’ 形, ‘丨’ 形이 끝나면 ‘丶’ 形, ‘丶’ 形 以後에는 ‘ノ’ 形, 다음에는 ‘乙’ 形 順序로 배열하였다. 단, 동일하거나 비슷한 혹은 반대되는 字形(혹은 字義)이 동일한 劃數의 部首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說文』 540部首의 排列原則을 준용하여 배열하였다.



VI. 結 論

許慎이 『說文』을 편찬하면서 創案한 540部首는 다양한 원인 즉, 시대적·사회적, 字典 편찬자의 思想的, 字形 변천 등 원인으로 말미암아 部首의 數量 및 部首間 排列順序에 많은 變化·發展을 거듭하였다. 部首의 설정과 部首의 수량적 측면을 살펴본다면 540部首에서 214部首로 병합되었고, 現代 字典에 이르러서는 더욱 簡化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部首 簡化는 독자들에게 字典을 찾을 때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다.

部首設定 측면에서 部首의 簡化는 『說文』 540部首에서 『字彙』 214部首로 어떻게 병합되고 삭제되었는지를 통하여 이미 확인하였다.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字彙』는 當時 유행하였던 書體인 楷書體를 표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小篆體를 표제자로 삼은 『說文』 540部首는 동일한 字形을 根幹으로 하는 楷書體에 병합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병합이 아니라 다양한 原則(楷書體의 字形, 十二地支, 數(劃數)에 의한 병합의 原則)에 근거하여 214部首로 병합되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근거는 동일한 字形이라는 점이다. 즉, 字形이 같으면 병합이 가능하고 字形이 다르면 병합이 불가능하다라는 원칙으로 본고에서는 併合의 原則으로 소개하였다. 게다가 유사한 字形인 경우에는 字義까지 고려하여 字義가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병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병합이 불가능하다. 또한 『說文』 540部首 中 약 40% 정도에 해당하는 合體字가 部首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部首는 『字彙』 214部首에 이르러 合體字를 文과 文으로 나누어 의미상 보다 유사한 文을 字形으로 한 글자가 部首로 설정되었을 경우에 그 部首에 병합되고 있다.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는 『字彙』 214部首를 근간으로 部首를 설정하였지만 各種字典마다 편찬 목적을 달리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部首의 표제자를 楷書體로 하고 있는가 혹은 簡化字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楷書體와 簡化字를 혼합하여 구성하고 있는가의 與否, 만일 楷書體와 簡化字를 혼합하여 구성하고 있다면 楷書體를 중심으로 이

에 대한 簡化字를 附列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이와 반대로 簡化字를 중심으로 楷書體를 附列시키고 있는지 혹은 각각 별개적으로 部首를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일 개별적으로 部首를 설정하고 있다면 部首의 數量이 증가할 것이고 楷書體와 簡化字를 병합하여 部首를 설정한다면 部首의 數量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部首의 簡化라는 추세를 따른다면 常用部首(현대는 실용성이라는 목적으로 簡化字를 常用字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常用部首는 簡化字를 표제자로 채택하는 것이 現代字典의 편찬 목적 및 部首 簡化的 추세에 보다 적합하다고 여겨진다)를 正部首로 하고 常用部首와 동일한 部首(예를 들면 簡化字로 설정된 部首에 해당되는 楷書體가 部首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常用部首에 附列시키는 방식을 채택해야 보다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하면 部首의 設定 즉, 部首의 數量이 증가되는 것을 억제 할 수 있을 것이다.

部首間 排列順序에 대하여 『說文』 540部首는 據形系聯의 原則을 이용하여 540部首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字形을 基準으로 排列하고 있다. 즉, 前部首와 동일한 字形 혹은 유사한 字形을 지닌 部首가 있을 경우에 바로 뒤에 서로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연결된 部首는 540개의 部首 가운데 약 80% 정도인 434개의 部首이다. 이러한 原則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隔部の 原則에 근거해야 하는데, 隔部の 原則이란 合體字가 部首로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合體字의 구성 부분 즉, 各各의 文을 먼저 배열 한 후 다시 合體字로 된 部首 이전의 部首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字形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게다가 字形으로 연결이 불가능한 부분에서는 字義(약 15%에 해당하는 79개의 部首) 및 字音(약 3%에 해당하는 16개 部首)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나머지 10개의 部首는 연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據形系聯의 原則은 『字彙』 214部首에 이르러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部首의 표제자의 書體가 小篆體에서 楷書體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楷書體에서는 劃數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梅膺祚는 『易』을 통하여 모든 문자는 數로 이루어져있음을 파악한 후 모든 문자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字形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부류 가운데 가장 根幹이 되는 字形(偏旁)을 部首로 설정하여 劃數別(1劃~17劃)로 部首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干支 가운데 十二地支의 紀數思想을 바탕으로 그 順序의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그가 채택한 紀數思想은 1劃 部首~17劃 部首 및 屬字의 排列順序를 의미하고 2劃 部首 이하의 동일한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는 1劃 部首의 排列順序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1劃 部首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즉, 모든 문자는 1劃 部首의 조합으로 조성될 수 있고, 또한 1劃 部首는 모든 문자의 첫 畫順을 의미하므로 모든 문자는 1劃 部首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字彙』 214部首 中 1劃 部首의 排列順序는 七音의 全清을 始作으로 하고 다시 七音의 全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2劃~17劃 部首 中 동일한 劃數의 部首 사이에 우선 같거나 서로 비슷한 字形으로 분류(약 31%에 해당하는 67개의 部首), 서로 같거나 비슷한 字義로 분류(약 15%에 해당하는 31개의 部首), 서로 동일한 聲母로 분류(약 13%에 해당하는 28개의 部首) 그리고 한 部首 건너 동일한 聲母로 분류(약 8%에 해당하는 18개의 部首)로 각각 분류한 후 이들 부류간 연결을 1劃 部首의 排列順序에 따라 연결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原則은 音韻學的 知識이 없다면 매우 불편하므로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 中 동일한 劃數의 部首間 排列順序는 1劃 部首의 排列順序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字彙』 214部首의 1劃 部首의 排列原則과 일치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許慎의 據形系聯의 原則을 변형시켜 동일한 劃數의 部首間 배열에 이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서로 같은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즉, 문자의 첫 畫順을 기준으로 ‘一’ 形, ‘丨’ 形, ‘丿’ 形, ‘丶’ 形 그리고 기타 形으로 분류한 후 1劃 部首의 排列順序에 따라 동일한 劃數의 部首를 배열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許慎의 據形系聯의 原則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許慎은 字形으로 연결이 불가능한 부분을 字義 및 字音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나, 現代 各種字典의 部首는 위의 ‘一’ 形, ‘丨’ 形, ‘丿’ 形, ‘丶’ 形으로 분류한 후 1劃을 畫順으로 하지만 이와는 다른 字形이 있으면 이를 기타로 분류하여 가장 마지막에 배열하고 있다.

위 내용을 토대로 筆者는 部首에 대한 規範化 方案을 제시하였으나, 部首에 대한 다른 분야의 연구 결과에 의하여 部首 規範化에 대한 새로운 方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러한 部首에 대한 規範化 過程을 통하여 현대 中國에서 통용되고 있는 字典의 部首를 規範化하고 더 나아가 漢字文化圈에 속한 韓國, 中國, 日本에서 통용되고 있는 字典의 部首에 대한 規範化 작업이 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參考文獻】

論文

- 金 槿(1981),「說文解字 部首의 字次와 그 意義」,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張 標(1988),「說文部首與字源」,中國河北師範大學學報 社科版
- 金小春(1985),「說文部首以音相次例」,中國杭州大學學報 哲社版
- 王 平(1985),「漢字部首的創立和改革」,山東師範大學學報 哲社版
- 何大定(1957),「說文解字部首刪定」,中國 廣州中山大學語言歷史學研究所 第9集
- 施人豪(民國 63),「鄭樵文字說之商榷」,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研究所 碩士論文
- 高緒价(民國 72),「說文解字根造字研究-文字孳乳新探之一」,臺北師專學報10
- 高緒价(民國 73),「說文解字根造字研究-文字孳乳新探之二」,臺北師專學報10
- 耿二嶺(1981),「漢字部首名稱的規範問題」,中山大學研究生學刊, 1期
- 施安昌(1981),「唐人對『說文解字』部首的改革」,故宮博物院院刊, 4期
- 黃兆林(1981),「談談部首名稱的規範統一」,中國語文通訊
- 張旭光(1980),「梅膺祚創立二一四個部首和『康熙字典』(糾正國內外關於「『康熙字典』二一四個部首」提法的錯誤)」,揚州師院學報, 4期
- 程養之(1982),「談談統一部首查字法」,杭州師院學報
- 王有強(1983),「部首排檢法需要統一」,文字改革
- 群 一(1983),「說文解字部首和新華字典部首的淵源關係」,明師專學報
- 周國光·李向農(1983),「試論新版『辭海』部首的選取和建立」,安徽師大學報
- 蘇新春(1984),「試論『說文』部首之性質與分部」,宜春師專學報 哲社版(贛)
- 左民安(1987),「首的演變」,中文自學指導(滬)
- 河永三(1995),「中國 漢字辭典 部首排列 體系의 變遷」,中國語文論集 第10輯
- 朴秋鉉(1995),「The Chinese-dictionary Searching System and 214 Radicals」

著 書

- 許 慎(1963),『說文解字』(附檢字),中華書局
- 段玉裁(2001),『說文解字注』,中國上海古籍出版社
- 梅膺祚(1991),『字彙』,中國上海辭書出版社
- 江學謙(民國 59),『說文解字綜合研究』,東海大學出版部,臺灣
- 李敦柱(1997),『漢字學總論』,博英社
- 李 徹(民國 76),『說文部首研究』,國立臺灣師範大學
- 高 明(1996),『中國古文字學通論』,中國北京大學出版社
- 金相權(1993),『中語學基礎』,中央大學校出版部
- 王 力(1991),『漢語音韻』,中華書局
- 臧克和(1994),『說文解字的文化說解』,湖北人民出版社
- 向 夏(1986),『說文解字部首講疏』,中華書局香港分局
- 向 夏(1986),『說文解字絞講疏』,中華書局香港分局
- 徐子宏 譯注(1994),『周易全譯』,貴州人民出版社
- 鄭 樵(1995),『通志』「六書略」,中華書局
- 高名凱(民國 74),『漢語語法論』,臺灣開明書店
- 王寧·謝棟元·劉方 著(2001),『說文解字與中國古代文化』,遼寧人民出版社
- 劉業秋(1964),『常用字典十講』,商務印書館
- 黃德寬·陳秉新(1994),『漢語文字學史』,安徽教育出版社
- 徐復·宋文民 著(2003),『說文五百四十部首正解』,江蘇古籍出版社
- 姜椿芳·梅益(1998),『中國大百科全書』,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王力 著,李鍾振·李鴻鎮 譯(1980),『中國言語學史』,啓明大學校出版部
- 신성곤·윤혜영 共著(1997),『중국통사』,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廣文編譯所 編(民國 71),『國音中古音對照表』,廣文書局出版社
- 商務印書館 編(1987),『新華字典』重排本,商務印書館出版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編(1996),『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出版
- 高大民族文化研究所 編(1992),『現代中漢辭典』,高大民族文化研究所

关于汉字部首规范化的研究

- 『说文』540个部首与『字汇』214个部首的比较 -

金 河 鍾

汉字部首自东汉许慎始创沿用至今已一千九百馀年。自汉字部首创立以来，为了使它更加通俗化，实用化，科学化，人们在部首的简化，部首的排列等方面，做了许多尝试和探讨，取得了许多成绩。回顾和总结汉字部首变迁的历史，对于现在部首的整理工作以及汉字变革，是有借鉴意义的。

许慎从汉字形体结构出发，依据“六书”的原则，把9,353个汉字归属于540个部首之下，首创汉字部首，开中国字典部首排检法之先河。540个部首的排列，许慎称是“据形系联”的。段玉裁注释道：“凡部之先后，以形之相近为次。”考察『说文』部首的排列次序，细细体会，笔者认为所谓“据形系联”实际上就是把形体相关的部首排在一起。这样排列，对小篆体来说是便于据形查检的。在对540个部首的排列中，有434个是依据“据形系联”原则排列的，约占是部首个数的80%。另有一部分不能按以上规则排列，其中约15%按字义关系排列，有79个。约3%按读音相近排列，有10个。还有10个按以上规则都无法排列，另外列出。

明代梅膺祚的『字汇』，在『说文』540个部首的基础上，经过合并，增减，确定汉字部首为214个部首，以此统摄33,179个汉字。梅膺祚从通行汉字的形体结构出发，对『说文』部首的数量及排列次序，进行了一次大改革。自此以后，部首查字法才真正成为了一种较科学，较实用的查字方法。清代的『康熙字典』，近代的『中华大字典』，旧『辞海』，『中文大辞典』等字典，都沿用了『字汇』的214个部首以及部首排列次序，可见其影响的深远。

『字汇』214个部首的排列次序是革除“据形系联”，立“以笔划之多寡循序列之”的部首排列原则。楷书汉字，已有了明确的笔划，每个汉字的笔划都清晰可数。梅膺祚依据通行汉字形体结构的特点，变易部首排列原则，使部首排检法较以前更科学，实用。

梅膺祚对于汉字一画部首有了新的认识。所有的汉字都由一画部首组合而成，

并且确定汉字的第一笔画，这一点尤其重要。在『字汇』的214个部首中，一画部首的排列顺序，首先按汉语拼音声母七音(牙·舌·唇·齿·喉·半舌·半齿音)的全清音为序，而后又按七音的全浊音为序排列，在对2~17画的部首排列中，有的按相同或相近字形进行分类(约占31%，共计67个)，有的按相同或相近的字义进行分类(约占15%，共计31个)，有的按相同的声母进行分类(约占13%，共计28个)，按间隔同类声母进行分类(约占8%，共计18个)。以上各种分类方法都是根据一画部首的排列顺序相联系的。这样的顺序是跟下面的相同。

牙音+全清 → 舌音+全清 → … → 牙音+次清 → 舌音+次清 → … → 牙音+全浊 → 舌音+全浊 → … → 牙音+不清不浊 → 舌音+不清不浊 → … → 半齿音+不清不浊 → 牙音+全清 → …

但是，以上原则如戈不运用音韵学知识，那就很不方便。现代各种字典中的部首排列顺序是按照一画部首间的顺序标准进行排列的。这一点与『字汇』中214个部首中的一画部首的连结原则是一致的，当然我们也发现其中另外的情况存在。在同一画数的部首间的排列方面是许慎“据形系联”原则的变形，不过从实质上看，二者的原则是相同的。即根据汉字的笔顺的第一画如“一”、“丨”、“丿”、“丶”以及按照其他笔画分类后的一画部首的排列顺序来安排同一画数的部首。因此，这跟许慎的“据形系联”原则是相同的。但是许慎把不能用字形连结的部分根据字义和字音联系起来，现代各种字典的部首大多以“一”、“丨”、“丿”、“丶”画分类后的首画为序，除此以外，把其他字形另行分类排列在最后。

汉字部首的数量和排列，经过长期的研究，已经有了很大的改进，但至今没有一个统一的标准，因此，统一汉字部首已成为当务之急。在此基础上，笔者就部首的规范化方案提出了新的观点。这一点与其他研究者从另外的角度提出的见解截然不同，以后这种观点也可能被别人从另外的角度进行的研究所改变。

有关于部首规范化过程的研究，对于现代中国通用字典的部首规范化，尤其是包括韩国、中国、日本在内的汉字文化圈内通用字典中关于部首规范化的研究工作具有重要意义。

【附 錄】

『說文』 540部首와 『字彙』 214部首 比較表

【표 설명】

- 가. 『說文』 540部首와 『字彙』 214部首 比較表는 段『注』(上海古籍出版社, 1988)에 근거하여 도식화하였다. 하지만 이 책과 徐鉉이 지은 『說文』과 다른 부분⁵⁰⁾은 徐鉉의 『說文』 540部首의 順序를 따른다.
- 나. 이 表 中 사용된 符號는 ➡, ⇄, ✚ 세 가지이다. 즉, ➡ 符號는 바로 前 部首의 字形(全體의 이든 部分的 이든)을 받아 연결된 부분을 표시하고 있고, ⇄ 符號는 바로 前 部首의 字義로 연결된 부분을 표시한다. 字義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種類別로 연결되는 부분도 포함한다. 그리고 ✚ 符號는 字形과 字義가 아닌 字音으로 연결된 부분을 표시한다.
- 다. 위에서 제시한 符號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결이 불가능한 部首를 의미한다.
- 라. 본론에서 언급한 세 가지 隔部原則을 적용하여 바로 前 部首와 字形의 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 原則에 合당한 경우 ➡ 符號를 그대로 사용한다.
- 마. 表 中 1, 2, 3 등은 『說文』 540部首의 배열순서를 나타내고 이러한 數字 다음에 ● 는 『說文』 540部首가 『字彙』 214部首에서 削除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된 部首를, ◎ 는 『說文』 540部首가 『字彙』 214部首에서 併合된 部首를, ★ 는 『說文』 540部首가 『字彙』 214部首에서 削除된 部首를 나타낸다. 그리고 ◎ 다음의 () 안에는 『說文』 540部首가 『字彙』 214部首 中 어떠한 部首에 併合되었지를 나타낸다.

50) 段『注』와 서현(徐鉉)의 『說文』(許慎이 편찬한 『說文』은 이미 亡逸되었으나, 宋 太宗 雍熙三年(986) 서현(徐鉉) 등이 校定한 『說文』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볼 수 있는 『說文』은 許慎이 편찬한 것이 아니라 서현(徐鉉) 등이 편찬한 것으로 지금 『說文』이라 하면 이 책을 指稱한다)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즉, 段『注』中 部首의 順序는 甘(150), 旨(151), 曰(152), 乃(153), 彡(154), 可(155), 兮(156), 号(157), 亏(158), 喜(159) 順序로 배열되고 있으나, 徐鉉의 『說文』은 甘(150), 曰(151), 乃(152), 彡(153), 可(154), 兮(155), 号(156), 亏(157), 旨(158), 喜(159) 로 서로 順序가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說文』540部首斗『字彙』214部首 比較表

1 ●	2○(一)	3 ●	4○(一)	5○(玉)	6 ●	7○(玉)	8 ●	9 ●	10 ●
一	彡	彳	三	王	王	王	彡	士	丨
	→	→	→	→	→	→	→	→	→
11 ●	12 ●	13○(艸)	14○(艸)	15 ●	16 ●	17 ●	18○(十)	19 ●	20○(牛)
屮	艸	艸	艸	川	川	彡	半	牛	犇
→	→	→	→	→	→	↔	→	→	→
21○(口)	22 ●	23 ●	24 ★	25○(口)	26 ●	27 ●	28 ●	29○(止)	30○(止)
古	口	口	出	哭	走	止	止	止	止
→	→	→	→	→	↔	→	→	→	→
31○(止)	32○(日)	33 ●	3 4 ●	35 ●	36 ★	37 ●	38 ●	39 ●	40 ●
正	是	正	彡	彡	心	衤	齒	彡	足
→	→	→	→	→	→	→	→	↔	→
41 ●	42○(口)	43 ●	44○(門)	45 ★	46 ●	47 ●	48 ●	49○(口)	50○(口)
足	品	龠	鼎	鼎	古	干	寺	只	商
→	→	→	→	→	→	→	→	→	→
51○(口)	52 ★	53○(口)	54 ●	55○(十)	56 ●	57 ★	58 ●	59○(立)	60 ★
司	司	古	十	卅	卮	卮	卮	卮	卮
→	→	→	→	→	→	→	→	→	→
61 ★	62 ●	63 ★	64○(八)	65○(田)	66○(白)	67 ★	68○(日)	69○(火)	70 ●
業	冂	冂	冂	冂	冂	冂	冂	冂	冂
→	→	→	→	→	→	→	→	→	→
71 ●	72 ★	73 ●	74○(丨)	75 ●	76 ●	77○(ノ)	78○(口)	79 ●	80 ★
冂	冂	冂	冂	冂	冂	冂	冂	冂	冂
↔	→	→	↔	→	→	→	→	→	→
81 ●	82○(田)	83 ●	84○(臣)	85 ●	86 ●	87○(女)	88 ★	89 ●	90 ●
冂	冂	冂	冂	冂	冂	冂	冂	冂	冂
→	→	→	→	→	→	→	→	→	→
91○(瓦)	92 ●	93○(支)	94 ●	95 ●	96 ●	97 ★	98○(目)	99 ●	100 ★
冂	冂	冂	冂	冂	冂	冂	冂	冂	冂
→	→	→	→	→	→	→	→	→	→

『說文』540部首斗『字彙』214部首 比較表

101◎(目)	102◎(目)	103 ●	104 ●	105 ●	106◎(白)	107◎(習)	108 ●	109 ●	110 ★
眚	盾	眚	𠂔	鼻	𠂔	習	羽	彥	雀
➡	➡	➡	➡	➡	➡	➡	➡	↔	➡
111◎(艸)	112◎(艸)	113◎(艸)	114 ●	115◎(羊)	116◎(目)	117◎(隹)	118◎(隹)	119 ●	120 ●
萑	𦍋	首	羊	𦍋	瞿	隹	彥	鳥	鳥
➡	➡	➡	➡	➡	➡	➡	➡	↔	➡
121◎(十)	122◎(門)	123 ●	124◎(玄)	125 ★	126 ●	127◎(丿)	128◎(支)	129◎(又)	130 ★
𦍋	𦍋	𠂔	𠂔	𦍋	宮	弓	攴	攴	𠂔
↔	➡	↔	➡	➡	➡	➡	➡	➡	➡
131◎(夕)	132◎(夕)	133◎(門)	134 ●	135 ●	136◎(竹)	137 ●	138◎(刀)	139 ★	140◎(丿)
𠂔	𠂔	𠂔	𠂔	𠂔	筋	刀	刀	𠂔	𠂔
➡	➡	➡	➡	➡	➡	↔	➡	➡	➡
141 ●	142 ●	143 ●	144◎(竹)	145◎(一)	146◎(工)	147 ●	148 ★	149◎(工)	150 ●
素	角	林	箕	丌	工	工	工	工	目
➡	➡	↔	➡	➡	➡	➡	➡	➡	
151 ●	152◎(丿)	153◎(一)	154◎(日)	155◎(八)	156◎(日)	157◎(二)	158◎(日)	159◎(口)	160◎(土)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	➡	➡	➡	➡	➡	➡	➡	↔	➡
161 ●	162◎(豆)	163 ●	164◎(豆)	165◎(豆)	166◎(虎)	167 ●	168◎(虎)	169◎(虎)	170 ●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	➡	➡	➡	➡	➡	➡	➡	➡	↔
171 ●	172◎(厶)	173 ●	174 ●	175◎(丿)	176 ●	177◎(丿)	178◎(白)	179 ●	180 ●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	➡	➡	➡	➡	➡	➡	➡	➡	➡
181◎(人)	182◎(日)	183◎(人)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一)
𠂔	會	倉	𠂔	𠂔	𠂔	高	𠂔	𠂔	𠂔
➡	➡	➡	➡	➡	➡	➡	↔	➡	➡
191◎(一)	192 ★	193 ★	194◎(一)	195◎(口)	196◎(人)	197 ●	198 ●	199 ●	200◎(舛)
倉	𠂔	𠂔	倉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	➡	➡	➡	➡	➡	➡	➡	➡	➡

『說文』540部首斗『字彙』214部首 比較表

201 ●	202◎(弓)	203 ●	204◎(ノ)	205◎(木)	206 ●	207◎(木)	208◎(木)	209◎(手)	210 ★
→	→	→	→	→	→	→	→	→	←
211◎(ノ)	212◎(巾)	213◎(山)	214◎(木)	215 ●	216◎(ノ)	217◎(ノ)	218 ★	219◎(艸)	220 ★
→	→	→	←	→	←	→	→	→	→
221◎(禾)	222◎(㒼)	223◎(木)	224◎(木)	225◎(木)	226 ●	227◎(口)	228 ●	229 ●	230 ★
→	→	→	→	→	→	→	→	→	→
231 ●	232◎(日)	233 ★	234◎(方)	235◎(冫)	236◎(日)	237 ●	238◎(月)	239◎(日)	240◎(口)
→	→	→	→	→	→	←	→	→	→
241 ●	242◎(夕)	243 ●	244 ★	245 ★	246 ★	247 ●	248◎(木)	249 ●	250 ●
→	→	←	←	←	←	←	→	→	→
251◎(儿)	252◎(工)	253 ●	254◎(禾)	255 ●	256 ●	257 ●	258◎(攴)	259 ●	260◎(山)
←	←	→	→	→	→	→	→	→	→
261 ★	262 ★	263 ●	264◎(小)	265◎(雨)	266 ●	267 ●	268◎(瓜)	269 ●	270◎(+)
←	←	→	←	←	←	←	→	→	→
271◎(口)	272 ●	273◎(+)	274 ●	275 ●	276◎(門)	277◎(門)	278◎(入)	279 ●	280 ●
→	→	→	→	→	→	→	→	→	→
281 ●	282◎(巾)	283 ●	284 ●	285 ★	286 ●	287 ●	288◎(匕)	289 ●	290◎(+)
→	→	→	→	→	→	←	→	→	→
291 ●	292◎(匕)	293◎(+)	294◎(人)	295◎(土)	296◎(里)	297◎(臣)	298 ●	299 ★	300 ●
→	→	→	→	→	→	→	→	→	→

『說文』540部首斗『字彙』214部首 比較表

301◎(衣)	302 ●	303 ●	304◎(毛)	305 ●	306◎(尸)	307◎(尸)	308◎(尸)	309 ●	310 ●
褻	𦘒	𦘓	𦘔	𦘕	尸	屍	履	𦘗	𦘘
➡	➡	➡	➡	➡	➡	➡	➡	➡	➡
311 ●	312◎(儿)	313◎(儿)	314◎(白)	315 ★	316◎(儿)	317◎(禾)	318 ●	319 ★	320 ●
𦘙	𦘚	𦘛	𦘜	𦘝	𦘞	𦘟	𦘠	𦘡	𦘢
➡	➡	➡	➡	➡	➡	➡	➡	➡	➡
321 ★	322 ★	323◎(无)	324 ●	325 ★	326 ●	327◎(-)	328 ●	329 ★	330◎(首)
𦘣	𦘤	𦘥	𦘦	𦘧	𦘨	𦘩	𦘪	𦘫	𦘬
➡	➡	➡	➡	➡	➡	↔	➡	➡	➡
331 ●	332◎(彡)	333 ●	334 ●	335◎(口)	336◎(口)	337◎(口)	338 ●	339◎(口)	340 ●
彡	彡	彡	彡	𦘭	𦘮	𦘯	𦘰	𦘱	𦘲
➡	➡	➡	➡	➡	➡	➡	➡	➡	➡
341◎(口)	342◎(辛)	343 ●	344◎(勹)	345◎(艸)	346 ●	347◎(田)	348 ●	349◎(山)	350 ●
𦘳	𦘴	𦘵	𦘶	𦘷	𦘸	𦘹	𦘺	𦘻	𦘼
➡	➡	↔	➡	➡	↔	➡	➡	➡	➡
351 ●	352◎(山)	353 ●	354 ●	355◎(勹)	356◎(口)	357 ●	358 ●	359◎(勹)	360◎(門)
𦘽	𦘾	𦘿	𦙀	𦙁	𦙂	𦙃	𦙄	𦙅	𦙆
➡	➡	➡	➡	➡	➡	➡	↔	↔	↔
361 ●	362 ●	363 ★	364◎(王)	365◎(豕)	366 ●	367◎(豕)	368◎(日)	369◎(豕)	370 ●
𦙇	𦙈	𦙉	𦙊	𦙋	𦙌	𦙍	𦙎	𦙏	𦙐
↔	↔	➡	➡	➡	➡	➡	➡	➡	➡
371◎(广)	372◎(鹿)	373 ★	374 ★	375◎(儿)	376 ★	377 ●	378 ★	379 ●	380◎(肉)
𦙑	𦙒	𦙓	𦙔	𦙕	𦙖	𦙗	𦙘	𦙙	𦙚
➡	➡	➡	➡	➡	➡	↔	➡	↔	➡
381◎(心)	382 ●	383◎(火)	384 ●	385◎(口)	386◎(火)	387◎(火)	388 ●	389 ●	390◎(-)
𦙛	𦙜	𦙝	𦙞	𦙟	𦙠	𦙡	𦙢	𦙣	𦙤
➡	➡	➡	➡	➡	➡	➡	➡	➡	➡
391 ★	392◎(大)	393◎(-)	394 ●	395◎(土)	396◎(土)	397◎(干)	398◎(大)	399◎(-)	400◎(大)
𦙥	𦙦	𦙧	𦙨	𦙩	𦙪	𦙫	𦙬	𦙭	𦙮
➡	➡	➡	➡	➡	➡	➡	➡	➡	➡

『說文』540部首斗『字彙』214部首 比較表

401◎(大)	402 ★	403◎(大)	404 ●	405◎(立)	406●(口)	407◎(心)	408 ●	409◎(心)	410 ●
→	→	→	→	→		→	→	→	←→
411◎(水)	412◎(水)	413◎(𣶒)	414◎(𣶒)	415◎(𣶒)	416◎(水)	417◎(水)	418◎(水)	419◎(ノ)	420 ●
→	→	→	→	→	→	→	→	→	→
421◎(人)	422 ●	423◎(雨)	424 ●	425 ★	426◎(火)	427 ●	428 ●	429 ●	430◎(十)
→	←→	→	←→	→	→	←→	←→	→	→
431 ★	432◎(一)	433 ●	434◎(西)	435 ●	436◎(鹵)	437 ●	438 ●	439 ●	440 ★
→		←→	←→	←→	→	←→	→	→	←→
441 ●	442 ★	443 ●	444 ●	445◎(氏)	446 ●	447◎(ノ)	448 ★	449 ●	450◎(氏)
←→	→		→	←→	←→	←→	→	←→	→
451◎(戈)	452◎(戈)	453◎(戈)	454 ●	455◎(王)	456 ★	457◎(一)	458 ●	459 ●	460◎(日)
→	→	→	←→	←→	←→	→	→	→	←→
461◎(田)	462 ●	463 ●	464 ★	465◎(弓)	466 ●	467 ●	468◎(系)	469◎(系)	470◎(女)
←→	←→	←→	→	→	→	→	→	→	→
471 ●	472 ★	473◎(虫)	474 ●	475◎(宀)	476 ●	477 ●	478◎(口)	479 ●	480 ●
	→	→	→	→	→	→	→	←→	→
481◎(土)	482◎(土)	483 ●	484 ●	485 ★	486 ●	487◎(田)	488 ●	489◎(力)	490 ●
→	→	→	→	→	→	→	→	→	←→
491◎(干)	492◎(ノ)	493 ●	494◎(一)	495 ●	496 ●	497 ●	498 ●	499◎(ノ)	500 ●
←→	←→	←→	←→	←→	←→	←→	←→	←→	→

『說文』 540部首와 『字彙』 214部首 比較表

501 ★	502◎(△)	503◎(口)	504◎(宀)	505 ★	506◎(二)	507◎(二)	508◎(八)	509◎(-)	510◎(乙)
→	↔	↔	→	→	→	↔	↔	↔	↔
511◎(△)	512◎(口)	513◎(田)	514 ●	515◎(-)	516◎(-)	517◎(戈)	518 ●	519◎(己)	520◎(广)
→	↔	↔	↔	↔	↔	↔	↔	→	↔
521 ●	522 ★	523◎(士)	524◎(宀)	525 ●	526◎(丁)	527 ★	528 ★	529◎(-)	530◎(宀)
↔	→	↔	↔	↔	→	→	→	↔	↔
531◎(口)	532 ●	533◎(己)	534◎(十)	535◎(木)	536◎(田)	537 ●	538 ●	539◎(戈)	540◎(+)
↔	↔	↔	↔	↔	↔	↔	→	↔	↔